

교 가

한반한 희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과같이 달리고 달려
영도에 남고위는 용마보다도
연대를 구비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쌔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답으로
크나큰 이념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이병찬
편집주간 이상룡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본부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11-503 팩스 051-245-7551-3 Tel. 051-245-7551-3 Fax. 051-245-7551
제작 사인텔 Tel. 051-245-2337

1968년 6월 1일 창간

www.kyungnam.or.kr

제409호 - 2016년 6월 3일 발행

“있어야 할 자리에는 항상 있도록 하겠다”

이병찬 본부동창회 제35대 회장 취임, 현장중심 동창회 역설 김영삼 대통령 흥상 건립, 회원명부 발간 등 올해 사업 밝혀

회장 직무대행 이병찬(23회) 동문이 경남 중고등창회 제35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병찬 동문은 지난 3월 7일 부산 중구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53차 정기총회에서 민정일자로 회장에 추대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박대동(23회) 직전 회장의 전직적인 사업 이후로 야기된 회장 직무대행 체제는 일단락되고 새 집행부 체제로 정상화되었다.

이병찬 신임회장은 본부동창회의 담면 현안과 관련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현안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병찬 회장은 “동창회장으로서 가야 할 자리에는 반드시 가고 동창회장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는 항상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함으로써 동창회의 역동성 정립에 진력할 방침을 밝혔다.

이병찬 회장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지역 동창회와의 직속동창회 행사에 직접 참석해 동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회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지역 및 직



이병찬 동문이 제35대 경남중고등창회 회장에 취임했다.

능동창회 활성화를 본부동창회의 우선 과업으로 꼽았다.

이병찬 회장은 “우리 동창회는 몇몇 사람 이 이끌어가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의 쪽넓은 소통을 강조했다. 이병찬 회장은 이사회 분과위원회으로 위촉된 부회장들과 “함께 의논하고 토의

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교와 동창회가 발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 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찬 회장은 올해 추진할 사업과 관련해서, 김영삼(3회) 전 대통령 흥상을 서기 1주기에 맞추어 건립하고 회원명부를 새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교 70년사 편찬 작업을 뚜렷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0회 이후 기수들의 동기회 결성을 주진, 독려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행거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동창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방침도 확인했다. 이병찬 회장은 당면 현안을 포함하여 제반 회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운성부 재경동창회장과 협심한 회의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재경동창회와 함께 더불어 협조하고 단합하여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4면, 5면, 6면>

구본능 동문 3천만원 회사

70년사 자료수집 등 지원 경비로



재경동창회 장학회장인 구본능(21회), KBO 총재(21회) 등 모교 70년사 편찬 작업을 독려하기 위해 3천만원

을 회사했다.

구본능 동문이 회사한 3천만원은 연로한 원로 동문들의 증언을 녹취하고 편찬 자료를 수집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편찬 비용 충당 문제 등으로 딜로 상태를 면치 못하면 교사 편찬 작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부동창회 보 이상룡(24회) 주간과 재경동창회 보 박승준(27회) 편집인은 재학 시절 학생회 부회장을 지낸 한준석(3회) 재경동창회 고문을 방문해 1차로 증언을 녹취한 바 있다.

한편 KBO 총재인 구본능 동문은 오는 7·8월경 부산 기장아구장 개장 기념으로 모교와 부산고의 라이벌 아구연전을 준비하고 있다.

2억3천만원 규모 2016년도 예산안 승인

본부 정기총회 개최, 이병찬 회장 추대하고 ‘모교발전’ 건배 ‘용마의 밤’ 12월8일, 임원 회비 및 분담금 수입 증액하기로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2016년도 정기총회에는 김경희 재경고문 등이 참석해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본부동창회 제53차 정기총회가 3월 7일 저녁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거행되었다. <관련 기사 4면, 5면>

이날 총회는 박대동 직전회장의 사업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온 이병찬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병찬 회장은 취임 인사를 풍趣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하고 “오늘이 있기까지 동창회를 이끌어 주신 역대 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지역 동창회, 동기회 및 직속동창회 회장단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인사했다.

국회의원 윤리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하게 된 박대동 직전회장은 “동창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이병찬 회장의 비전과 포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굳게 믿으며 마음 든든히 생각하고 물러나게 되었다”면서 “부족한 저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성원해 주신 선배동문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23회 동기회는 이병찬 신임회장과 박대동 직전회장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한편, 총회는 1억5천6백여만원 규모의 본부동창회 운영 회계와 아구후원회, 동창회보, 울마골프대회 운영 회계에 대한 감사 보고와 결산보고를 각각 통과시켰다. 임태

영(40회) 감사는 감사의견을 통해 “자문위 원단과 부회장단을 재정비하여 임원 회비 부문의 수입을 확대하고, 기수별 분담금 납부를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도 임원 회비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천3백여만원이 증가한 8천7백만원이었으나, 기별 분담금은 전년도 대비 8백80만원이 감소한 3천2백40만원으로 지난 2011년 이래 가장 저조한 수입을 기록했다.

이날 총회는 임원 회비와 기별 분담금, 웰 천금, 회원명부 발행 수입금 등 전년 대비 7천2백여만원이 증액된 2억2천9백여만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김영삼 대동체육 흥상 건립, 회원명부 발행 등 새해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사회 분과위원회에 봉사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자문위원회를 당연직 이사로 위촉하는 회칙 제11조, 제12조, 제14조 조항을 포함한 회칙 개정안도 의결, 승인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개최된 제1차 이사회는 총회에 부의할 의안들을 심의, 의결했다.

이병찬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박대동 직전회장과 한원우(26회) 창원동창회 직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모교발전기금 1억원을 회사한 김영기(23회) 삼일분과위원회 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4대 대통령 김영삼 동문 흥상 모교에 세운다

본부동창회 사업으로 확정, 11월22일 서거 1주기에 제막
추진위원장 이병찬 회장, 김영기 부회장 건립 경비 협찬

서거 이후, 국민의 74%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공헌했다고 평가한 제14대 대통령 김영삼(金永植) 동문에 대한 용마가족들의 추모 열기와 행보가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해 11월26일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이 업수된 직후부터 동문들 사이에 이십전 심으로 형성된 흥상 건립 여론이 급진전되면서 올해 본부동창회 주요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본부동창회 이병찬 회장은 지난 3월7일 취임사를 통해 “금년도 구체적인 동창회 사업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흥상을 서기 1주기에 맞추어 모교에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병찬 회장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동창회보를 통해 김영삼 동문 흥상 건립을 제의한 바 있는, 전 경남중 교장 이요섭(李堯燮) 부신전자공고 교장이 추진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이병찬 회장은 재경동창회 및 모교와 함께 협의해 약관면의 추진위와 실무자를 구성한 계획이다.

당초 김영삼 대통령 흥상건립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추진위원장으로 임명 내정되어



김영삼 대통령의 동상은 거제사 생가과 대통령기록기념관, 청남대에 세워져 있다. 사진은 생가의 흥상이다.

었던 김영기(金永基) 부회장은 위원장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 부회장은 흥상 건립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포함해 건립 지원 원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 부회장은 “모교 국산관 분향소로 조문하러 간 길에 인용백 초대교장 흥상과 이태석 동문 동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 흥상을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

다”고 말하면서 건립에 소요될 경비를 적극적으로 협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7면>

한편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문정수(文正洙) 동문은 동창회가 신속한 행보를 보인 데 대해 감사하며, 흥상 건립을 기폭제로 삼아 김영삼 대통령 유지기념사업에도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정수 동문은 풍랑회보 기고문에서 “모교 교

정이나 구덕공원에 고인을 기념할 수 있는 소급한 공간이나, 아니면 작은 비석이라도 하나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동문들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흥상은 경남 거제시 장목면 생가와 거제시 김영삼대통령기록기념관 그리고 충북 청주시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각각 세워져 있다.

박상호 부회장 2천만원 쾌척

개교기념, 모교-동창회 각 1천만원



본부동창회 문화분과위원장 박상호(朴相浩) 부회장이 지난 4월 모교 개교 기념일에 모교와 본부동창회에 밤전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을 회사했다.

신태양건설 대표이사인 박상호 부회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하게 모교에 밤전기금을 기부해 왔다. 박 부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멤버이기도 하다.

“나가겠다”고 밝히고 “동문들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포럼과 동호회 및 지역 모임의 조직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부동창회 이병찬 회장은 “재경동창회는 본부동창회와 함께 용마가족을 이끄는 양대 촉”이라고 강조하고 “동창회 업무 전반에 걸쳐 윤성복 회장과 허심판회하게 협의하여 모교와 동창회 밤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중고발전위원회 전재호(全在浩) 위원장은 지난해 활동 상황을 설명하며 “젊은 후배들이 정성과 원로 선배들의 따뜻한 약속으로 용마인의 끈끈한 정을 확인했다”고 밝하고 “올해도 따뜻한 격려와 노소 구별없는 동문들의 참여를 간접하게 호소한다”면서 밤전기금 협찬을 독려했다.

배재숙(裴宰淑) 고문도 “경발위를 조직하고 1~2년에 모은 기금이 대부분”이라면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뛰어야 하며, 특히 31회 이후 기수의 참여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회에서는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구본홍(具本鴻) 동문과 휴리를 회장 김영기(金永基) 동문 등 6명이 영예의 ‘자랑스런 용마상’을 수상했다. 원로 회석원(回石院) 모영은(毛英憲) 서해왕(徐海王) 동문과 김경희(金敬熙) 이상택(李相澤) 배재숙 고문, 배공내(裴公內) 용마코리스 지휘자, 허병도(許秉道) 본부 고문이 각각 견배를 제의하며 용마가족들이 건승을 기원했다.

신년하례회의 연기는 용마코리스 단원 40여명의 응원한 남성합창 순서에서 최고 조에 달했다. 용마코리스는 이날 처음 발표한 ‘불가강의 넷노래’로 회의장을 암도한 뒤, ‘친구여’와 ‘선구자’를 연주해 드러운 감동을 받았다.

재경, 임원 조직은 슬림화, 외연·역량은 확장

재경 정기총회, 회원 거주 지역에 대전·충남북·강원도 추가
수석부회장에 문규철(23회) 동문, 3억7천여만원 예산 승인



재경동창회는 디딤모임과 동호회, 지역 모임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동창회가 조직은 슬림화하고 외연은 대폭 확장했다.

재경동창회는 임원 구성을 부회장은 기별 추천자 1명과 회장 추천자 2명으로 보임하고, 이사는 기별 회장 및 총무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지역동창회장과 동호회장을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회칙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기별 추천자 이외에 기별 회장이 자동적으로 부회장에 보임되었고, 이사는 기별로 15인 이내로 위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재경동창회 윤성복(22회) 회장은 “과다하고 복잡한 임원 구성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원의 자격을 규정한 회칙 제4조

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에 더하여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회원 자격을 자동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경동창회는 지난 2월1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회는 또 지난해 보다 5천350만원 가량 늘어난 새해 예산 3억7천140만원을 의결했다. (주)기암 대표이사 문규철(23회) 동문을 수석부회장에 선임

하고, 김사에 공인회계사 조자영(34회) 동문과 변호사 송지훈(42회) 동문을 유임시키는 임원 선임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자출 2억232만여원 규모에 총 모금액 61억951만여원 규모의 경남중고등학교 밤전위원회의 2015년도 결산서도 승인했다.

회원 자격의 거주 지역을 확장한 것과 관련해 정아존(33회) 사무총장은 “대전시를 위시해 중부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하는 동문들이 회원 자격 결격 사유로 밀미암아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사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재경동창회 회원에 추가된 중부권에는 대전, 충북, 원안아산 그리고 원주와 춘천에 각각 지역동창회가 결성돼 있다.

재경동창회는 임원 구성을 슬림화함으로써 집행부의 집중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으로, 중부권 지역동창회장이 부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함으로써 동창회의 역량이 수도권을 넘어 광대역으로 확산, 격상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밤전기금 모금에 주니어들 나서야”

신년하례회를 겸해서 열린 이날 축회에서 윤성복 회장은 “서울과 부산에서 발행되는 동창회보 통합 및 모교 70년사 밤전 등과 관련하여 본부동창회와 유기적으로 협

龍馬 8人 여의도 진출, 명문 전통 또 다시 우뚝

제20대 총선, 현역 6명 모두 승리, 경기고 이어 전국 2위 등극
김성태 동문은 비례대표,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안방에서 금배지

8인의 용마 선령들이 제20대 총선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함으로써 정가(政街) 명문의 전통을 무난하게 지켜냈다.

여상규(22회),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정갑윤(23회), 울산 중구 김무성(24회), 부산 중 영도구 박맹우(25회), 울산 남구을 박성중(30회), 서울 서초구을 유기준(32회), 부산 서.동구 조경태(40회), 부산 사하구을 둥문과 김성태(25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등문이 각각 제20대 총선에서 당선의 영예를 누렸다. 당선된 동문 모두 새누리당 공원을 벗었다.

이로써 용마군단은 13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경기고에 이어 당선자 최대 배출 학교 2위에 올랐다. 3위는 이번 총선에서 7명으로 약진한 대전고가 차지했고, 경북고, 광주제일고, 전주고, 충북고가 각각 6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과반 달성에 실패한 새누리당에서는 대전고(5명)와 경기고(4명)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서울 강서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구상환(31회) 동문은 수도권을 훑은 아당 농담에 밀려 여의도 재진출 문턱에서 아깝게 좌절되었다.

다선 의원 대거 포진, 요직 기용 전망돼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여상규 동문은 3선에 성공함으로써 중진 의원의 반열에 올랐다.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과 정족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대련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최우수 의원 10인에 뽑힌 바 있고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경남 도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국회 부의장 정갑윤 동문은 무소속 암종이 몰아친 울산에서 4선 고지에 올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통이 원만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성실한 의원으로 평한다. 해당 안팎에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꼽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으나 의회 권력이 여소야대로 불변함에 따라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당내 주요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온 예전히 높다.

김무성 동문은 6선의 영광을 누렸으나 충격적인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물러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총선 책임 공방의 전개 여부에 따라 대권 후보 한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대' 김무성 동문의 너네임의 경륜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관련 기사 9면>

전계의 공헌 전황에 맞서 단기로 헬부를 벤였던 김무성 동문은 공원 파문의 전운이 불려오던 지난 2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장시간 낮술 끼한주를 들리며 24회 동기들과 어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무성 동문은 이번 총선이 마지막 출마라고 밝힌 바 있어, 지역구 바통의 승계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알려진 변호사 김용원(25회) 동문을 유력한 후임자로 꼽고 있다.

울산광역시 '3선 시장' 출신으로 재선에 성공한 박맹우 동문은 20대 국회에서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박맹우 동문은 "다당제 국회에서 구조개혁



입법 등 사안별로 야당과 공조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항 오일 하브 구축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7차례나 낙선하고 8번의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긴질긴 도전을 물리친 박맹우 동문은 침체와 노후 징후를 보이고 있는 울산항 일대지의 재도약을 위해 유망산업 육성 등 경제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19대와 동일, 지역구 7인 비례대표 1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8번 후보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은 김성태 동문은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과 행정대학원장으로 명활약한 학자 출신이다. 서울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김성태 동문은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을 역임했으며 전자정부와 거버넌스, 디지털 신성장 동력, 방송통신융합 등의 분야에서 남다른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아성인 서울 강남에서 당선된

박성중 동문은 서초구청장을 역임했다.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박성중 동문은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 서울시 공보관, 서초구 부구청장을 거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비서실 부실장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초선이다. 도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 박 동문은 "달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일 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동문은 선거구 재획정으로 서구와 동구가 통합되 있음에도 거론하게 4선 고지에 올랐다. 전 박계 주요 인사로 꼽히는 유기준 동문은 유력한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였지만 유동치는 당내 쓰나미에 휩쓸리고 밟았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미국 뉴욕대에 유학,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대변인과 대표위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거쳐 명실공히 중진의원으로 어깨가 무거워진 유 동문은 "정치발전을 위해 뛰어지는 역할이 있다면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역운동장을 시민공원으로 가꾸는 사업을 지역 광역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직을 옮겨 회장을 모았던 조경태 동문은 야당의 '낙동강 벤트' 돌풍을 잡채우고 4선에 성공함으로써 중랑급 의원으로 부상했다. 해당 강세 지역에서 야당 의원으로 내리 3선을 돌파해 주가를 올렸던 조경태 동문은 "여야가 서로 존중하며 정책으로 평가받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내에서도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 대표위원 선출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역인 문재인 동문은 출마하지 않았고, 이만우(22회) 동문과 박대동(23회) 동문은 공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 당선자는 없지만, 지역구 7명, 비례대표 1명 분포는 19대와 동일하다.

회원 총명부 발간

2016년도 동창회원 총명부가 발행 작업 중에 있습니다.

(9월 초 발송 예정)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입료는 45,000원(택배비 포함)이며 광고 협찬을 해주신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총명부 수록용 '사진으로 보는 70년사' 사진(학창시절, 모교 전경 및 성적표,

월사금 납입장, 표창장, 교복, 모표, 운동복 등 실물 사진) 수집 중에 있습니다.

휴대폰 메일(010-5555-0879), E-mail(yongma2007@hanmail.net). 기수, 성명, 사진 설명도 첨부

본부동창회 이병찬 회장 취임사

가야 할 자리에는 반드시 가고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자랑스러운 후배 여러분!

지난해 12월21일 임시 이사회에서 풍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회장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오는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된 23회 이병찬입니다.

먼저 70여년의 전통에 빛나는 모교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라는 과분하고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바쁜 국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신 박대동 회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동창회를 이끌어 주신 역대 회장님을 위시하여, 본부 임원진, 각 지역동창회와 풍기회 및 직능동창회 회장단께 그동안의 동참과 격려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많은 동문들의 중지를 모아 총동창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지역동창회와 직능동창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직접 지역 및 직능동창회에 참석하여 동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회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이사회 분회위원회 회의를 매월 개최하겠습니다. 풍랑회는 몇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 부회장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토의 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모교와 동창회가 발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셋째, 재경동창회와 더불어 협조하고 단합하여 모교의 동창회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날 재경동창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윤성복 회장님과 앞으로 여러 가지 회무를 협심한회하게 의논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금년도 구체적인 동창회 사업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충상을 서거 1주기에 맞추어 모교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동창회 명부를 새로이 편집, 발행하도록 하겠으며, 모교 70년사 편찬과 '용마의 뱀' 개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동문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회 이후 후배 기수 풍기동창회가 결성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행정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을 이 자리에서 다 실현드릴 수는 없어도 동창회가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部族은 극심한 가뭄이 끝면 기우제를 올리는데, 그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족은 비가 내립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우제를 올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능가할 재능은 없다고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힘이야말로 성공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동창회의 여러 현안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하는 자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창회장으로서 가야 할 자리에는 반드시 가고 동창회장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선배님들, 힘을 보태 주십시오.

“추진 과제 산적한 병신년

2016년도 정기총회 성황, 박대동 전임회장 사임 인사



포기하지 말고 완수하자!"

이병찬 신임동창회장 '동창회 현안 착실하게 추진'



정기총회 이모저모

23회 동문들 5개 테이블에 대거 포진

◇…2016년 본부동창회 정기총회는 예산, 결산 승인 등 연례적인 통과 의안을 처리하고 선후배간 유대와 단합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될 총회였지만, 지난해 가을에 야기된 회장 권위 사건으로 담마임아 회장 선출 인건이 대두됨으로써 관심과 참여도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이길상(6회) 자문위원과 김경희(6회) 재경고문을 비롯해서, 이용호(19회) 오거돈(21회) 본부 고문, 천현직 부산시장인 문정수(12회) 서병수(25회) 동문, 송규정(16회) 덕경회장,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 윤성복(22회) 재경동창회장, 노기태(20회) 강사구형장, 박극숙(24회) 서구청장 등이 레드테이블에 자리잡았다.

또한 김영기(22회) 상임위원장과 위시한 분과위원장들과 지역 및 직능동창회장을 포함해 소개를 받았다. 특히 이병찬 신임회장과 박대통 직전회장의 23회 동기생들은 5개 테이블에 대거 '포진'해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계속하는 힘아야말로 성공의 핵심"

◇…제35대 본부동창회장에 취임한 이병찬 회장은 모교 70년사 편찬 등 아직도 이렇다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병찬 회장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가뭄이 극심할 때 기우제를 올리는데, 그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소개하고, 비가 내리는 까닭은 "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우제를 올리기 때문"이라며 "계속하는 힘아야말로 성공의 핵심이 아니겠느냐?"고 탄핵 감체를 받았다.

취임과 동시에 김영삼 대평행 회장과 회원명부 발간, 모교 70년사 책수, 용미의 밤 개최 등 굵직한 사업계획과 맞اك트리게 된 이병찬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자세로 나아갈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특히 "동창회장으로서 가야 할 자리에는 반드시 가고 있어야 할 자리는 항상 지키겠다"고 친명한 뒤 "동문 선후배님들, 힘을 보태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김경희 고문 '동창회와 인연 50년'

◇…"동창회와 인연을 맺은 지 유흘로 꼭 50년"이라고 서두를 끼낸 김경희 재경고문은 "대학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모교를 졸업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음으로 양으로 신세를 진 모교"라고 소회를 피력했다.

"자랑스런 후배들을 만나 오늘까지 전통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한 김경희 고문은 "모교의 신세를 진 적이 없다"고 강변하는 동문이 없지 않지만, 단언컨대 모교의 Favor를 받지 못한 용미는 없다"면서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해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다.

부산시 기관장회의 일정과 겹쳐 원희 회의장을 떠난 서병수 부산시장은 목하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주목을 끌이낸 뒤 "많은 풍문들이 도와 주시고, 문화시민들이 힘을 합쳐 성원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용미의 명예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윤성복 재경회장은 "같은 업계에서 동고동락한 이병찬 회장과 저는 서로가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각별한 인연이기에 향후 더욱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리라 확신한다"면서 "동창회보 통합과 모교 70년사 발간 등은 서로의 입장은 잘 조율해 조속히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①총회가 열리기 앞서 2016년도 제2차 이사회가 열려 총회 부의 인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②23회 총기회에서 이병찬 신임회장과 박대통 전임회장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③이임 인사를 하는 박대통 작전회장 ④총회에 참석한 윤성복 재경회장이 건네자리를 하며 이병찬 본부회장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상호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⑤이병찬 회장이 모교발전기금 1억원을 해외학자에게 김시비를 전했다. ⑥이날 총회는 코모도호텔 그랜드 볼룸을 매월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⑦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한 축하연사가 이어지면서 장내에는 박수갈채가 울어졌다. ⑧김경희(9회) 재경동창회 고문 ⑨김서구형장 노기태(20회) 동문 ⑩동명대 총장 오거돈(21회) 동문 ⑪부산시장 서병수(25회) 동문 ⑫상역 전공자 동문들과 초청 가수가 축하공연을 펼쳤다. ⑯총회가 끝난 뒤 해어지기 섭섭해 하는 동문들은 동기별로 2차를 즐겼다.

이병찬 회장 '광폭 행보' 어디까지...

지역 직능동창회 참석, '두주불사'로 선후배와 어울려
분과위원장회의 개최, 주요 현안들 심도 있게 논의해



이병찬 회장은 기회가 있는 대로 지역과 촉근 모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오른쪽 사진은 재경동창회 선친인사회에서 조우한 이병찬 회장과 윤상국 재경회장.



이병찬 회장이 특유의 '광폭 행보'를 선보이고 있어 동문사회에 호의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이후로 지역 및 직능동창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한 모교 주요 행사도 관심을 가지고 끌고 있다.

취임 인사에서 "많은 동문들의 중지를 모아 동창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이병찬 회장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직접 지역 직능동창회에 참석하여 동문들

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회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회장이 상당 기간 동안 해운대지역동창회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부동창회와 산하 동창회의 연결 고리를 본분하게 염두에 두고 노하우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현안들 순조롭게 풀어나갈 듯

이병찬 회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지역과 직능동창회 동문들은 한결같이 환영하고 있다. 특히 두주불사의 '실력자'로 알려

하고 있다. 지난 사편전에 필수적인 1950년대 관련 사초를 정리하기 위해 원로 동문들을 대상으로 증언을 녹취하기로 한 것.

이처럼 지지부진했던 70년사 편찬사업이 진전을 보인 데는 윤성복(22회) 재경회장과의 소통이 활발하기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재경정기총회에 참석해 동창회무 전반에 걸쳐 문회장과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김영삼 대통령 흥상 건립을 포함해서 회원명부 발행 사업과 동창회보 통합 문제 등 당면 현

안도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찬 회장은 이사회 분과위원장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다. 지난 1월19일과 2월22일, 3월22일에 각각 열린 분과위원장 회의에는 주요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는 부회장단과의 협의를 정기화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동창회를 현장 중심으로 중시를 모아 운영한다는 이 회장의 모토가 어느 수위까지 역동성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위원장에 박창언 동문



이병찬 본부 회장의 취임으로 광복이 된 이사회 재정분과위원장에 박창언(29회) 부신은행 상임감사가 위촉되었

다.

박 부회장은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을 역임하고 지난 2014년 부산은행 감사로 취임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우리들의 민남' 회장을 맡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역동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35회 박윤섭 동문 '자랑스런 용마상' 수상

언론인 구본홍(20회), 기업인 김영기(23회), 전용우(24회) 동문 등 시상 다양화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구본홍(20회) 동문과 휴름 회장 김영기(23회) 퍼스텍 대표이사 전용우(24회) 서울대 교수 박병주(27회) 심정희계법인 부대표 조자영(34회) 페나코바 코리아 대표이사 박윤섭(35회) 동문이 영예의 자랑스런 용마상을 수상했다.

재경동창회 윤성복 회장은 지난 2월18일 정기총회에서 상회를 수여했다. 자랑스런 용마상은 지금까지 정치계와 관계 및 범조계, 학계 동문들이 수상자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중소기업인 등이 선정되는 등 수상자들의 영역이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31회 이후 동문이 2명이나 포함된 것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수상자들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구본홍 동문/아시아투데이 상근 부회장인 구본홍 동문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문화방송 기자로 언론계에 뛰어들어 특히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YTN 사장, 기독교TV 사장을 역임하며 방송언론인으로 외길을 걸어왔다. 서울용마코리스 단장, 강남서초 용마회 회장 등으로 동문회 활동에 열성적이고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자랑스런 고대언론인상과 고대정경인상을 비롯해서 미시간대 동문상, 자랑스런 대한민국인상 등을 수상했다.

■김영기 동문/주식회사 휴름 회장인 김영기 동문은 40여년 동안 학습 분야의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세계 최초로 원액기를 개



2016년 자랑스런 용마상 수상자들. 원쪽부터 박윤섭, 조자영, 박병주, 윤성복, 재경회장 구본홍, 김영기 동문, 전용우 동문은 불참해 김영장 동기회 대리 수상했다.

벌써 상용화됐다. 연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김영기 동문은 휴름을 세계 유수의 프리미엄 기관 제조업체로 발전시킨 범명가이자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신지식특허인에 선정되었으며, 스위스제네바국제발명증진 금상을 두 차례 수상하고 1억불 수출탑도 받았다. 기업은행 명예의 전당에 한정되기도 했다.

■전용우 동문/퍼스텍(주)과 유쁜시스템(주) 대표이사 전용우 동문은 고려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테크윈에서 항공기 생산 및 엔진 디자인 일원으로 항공기 생산을 총괄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 해외

영업을 총괄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부회장으로 산학협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항공기 분야의 방위산업 발전에 큰 업적을 쌓았고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박병주 동문/서울대 교수인 박병주 동문은 국민보건의 최일선에서 병원화하는 소금과 같은 학자이다. 박 교수는 2009년부터 3년간 암돌감시연구사업단을 이끌며 국내 의약품의 부작용에 관한 보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으로 암돌감시 및 암돌화 분야에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역학계의 보배로 통한다. 박 동문은 의

약품 안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 제공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초대 원장에 올랐다. 국제약품안전학회 학술이사와 학회지 아태중동지역 편집위원, 한국약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장, 대한의협 약관안전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 의학안전학회 정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조자영 동문/국내 굵지의 회계법인인 심정희계법인 부대표로 활동하는 조자영 동문은 많은 은마 공인회계사를 배출한 부산대 상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제대학원에서 수학했다. 미국 오파이오주와 뉴욕주에서도 활동한 박 동문은 국내 유수의 상장기업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한국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공인회계사회 경영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회계계도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

■박윤섭 동문/총망자는 용마 CEO로 광복하는 박윤섭 동문은 동아대 독문과를 나와 이탈리아 물류회사인 JAS 코리아에 입사해 마케팅 기법을 터득한 뒤, 승승장구를 계속하고 있다. 물류 전문 기업인으로 성장한 박 동문은 폐선 기업인 페나코바 코리아를 위시해서 태양광발전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경영 영역을 확장하면서 단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재경동창회 이사로 동문회 활동도 활발하다. 용마골프회 총무를 맡아 선후배 간의 가교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하기도 했다.

용마탐구 / 김영삼 대통령 흥상 건립 제안한 (주)휴롬 회장 김영기 동문

휴롬 녹즙기 신화는 경고 물리실에서 나왔다

용마가족들에게 김영삼 대통령의 흥상 을 모교에 건립하는 일은 재분의 여지가 없는 당위론이었다. 진작에 예정된 미래였다. 김영삼 대통령 국가장이 업수된 직후부터 그의 흥상 건립 담론은 자연발생적으로 동문들 간에 피어올랐다. 김영기(23회) 동문도 마찬가지였다.

“김해 지역에 모교 국산관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분향하고 나와 오랜만에 모교를 둘러보았다. 재학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원행교사뿐이 있지만 여름이면 더위를 식히던 연못가에 이태석 신부의 동상이 세워진 것이 인상적이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흥상이 블렌 듯이 떠올랐다.”

부동당회 이사회 상임위원회장인 김영기 동문은 이병찬 회장에게 흥상 건립을 제안하고 소임을 자랑했다. YS 흥상은 즉석에서 글을 살았다.

김영기 동문은 거제시 장복면의 YS 생가 와 대통령 기록기념관은 물론 서울 상도동 사저와 김영삼 민주센터를 방문하고 개괄적인 구상을 정리했다. YS의 트레이드마크인 ‘대도무문’과 ‘닭’의 모자리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와 같은 어록과 행적을 반추하며 그의 역사관과 정치철학도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다고 했다.

방학 중에 목선 한 척 만든 손재주

(주)휴롬 회장인 김동문은 특별한 성공신화의 주인공이다. ‘세상에 없는 원액기’를 발명해 임야 세계적인 주방 가전 브랜드로 우뚝 선 ‘휴롬’은 영어 ‘Human’과 무리 말 ‘이로움’의 합성어라고 그는 설명한다. 거창하게 보면, ‘총인간’이 되겠다.

김해 녹산 낙동강 강가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어릴 적부터 생활과 무생물, 동물과 식물의 상관관계에 대해 흥미가 많았다. 식물도감을 구해 혼자 식물 박구에 빠지기도 했다. 관찰력과 집중력 그리고 밍기력이 또래보다 훨씬 우월했으리라 짐작된다.

여기에 대해서 ‘발명가’의 재능도 일찍이 발현되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집안에 있는 가구나 연장 따위가 딱기지거나 고장이 나면 수리, 수선은 그의 몫이었다. 그저 적당히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아무지게 벼려 놓는 것이었다.

신풍방통한 일화가 하나 있다. 그는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오랫동안 베르고 베른 공작(工作)을 실현한다. 낙동강에 빠울 배를 만든 것이다. 목선을 만드는 배 목수는 집을 짓는 대목과 병개의 기능으로 대접할 만큼 노하우가 따로 있다. 그러므로 배 목수 ‘시다’ 근처에도 가 보지 못한 그가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힘든 일이다.

안침에서 말하면 두 달 남짓한 여름방학 동안에 혼자서 배를 만들어 소망대로 낙동강에 빠웠다. 행여나 아버지한테 들키 혼날 것이 두려워 강가 갈대숲 속에 숨어서 끌래 만들었다. 끌은 기간 안에 목선 한 척을 빼 때 만들었다고 하니 제대로 뜨기나 했을까? 그 배는 혼남 큰 물난리가 났을 때,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



김영기 유종 회장은 ‘건강’ 이런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의 저택 앞뜰과 뒤편에는 그와 부인이 기구는 깨 넓은 빗장을 놓았다.

“경고 3년을 거의 물리실에서 보냈다”

모교에 대한 그의 애정은 둔독하다. 그의 말을 미루어 짐작하면, 오늘의 휴롬이 테아난 배경에는 모교 물리실이 있다.

“경고 3년을 물리실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실보다 물리실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공자 기계 만지는 일로 세월을 보낸 셈이다. 물론 물리 첨수가 제일 좋았다. 공부를 계획해 했으므로 서울대에 갈 험련이 끊 되었지만, 별스럽게 후회하지는 않는다.”

연세대 전기공학과에 진학했지만 대학의 커리큘럼 역시 진부하게 여겨졌다. 대학 노트에 필기하는 것보다 공작 연장을 다루는 것을 더 좋아했을까. 대학 공부도 작파했다. TV 부품을 제조하는 개성공업사를 차렸다. 그때가 1974년이다. 너나없이 매달리는 ‘가방끈’ 따위는 개념치 않고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을 탐구해 온 지도 어언 40년을 넘겼다.

그는 지금도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한다. 자택과 맞닿아 있는 그의 연구소는 넓은 정원을 거느린 조형미가 뛰어난 건축물이다. 마치 정보기관의 특수시설처럼 매우 기밀스러운 그곳에는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져 혼자서 연구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의 1급 보안 시설에 출입한 외부 인사는, 가로오케도 겸 비판 지하 연회장에서 아들린 23회 동기생들뿐이다.

자신의 연구실을 회사 안에 두지 않고 자택 곁에 둔 것은 감당하기 힘들었던 ‘배신’에서 터득한 불가피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었으나 끽뚱 제품과 복제품 출현으로 이끌어 난 그는 신제품 개발을 개인 연구실에서만 진행한다. 생산에 착수할 수 있는 도면을 완성하고 특히 출연 과정까지 모두 마친 뒤에야 비로소 직원들에게 공개한다.

10만평 규모 ‘휴롬공단’ 조성 착수

언론 지면에 간단없이 등장하는 휴롬 기사는 거의 어김없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학습 연구 외길만 걸어온 기업이 세계인의

라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더불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 줄 ‘모범 담인’을 준비하고 있다. ‘휴롬공단’으로 명명된 대규모 사업계획이 지난 2월 최종 승인을 얻었기 때문이다.

“10만평 규모로 조성될 휴롬공단 설계는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 5만평은 휴롬이 사용하고 나머지 5만평은 협력업체들에게 제공한다.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지는 텁문이고 유치원과 탁아시설도 갖추어 단지 안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도 들어선다. 기존 시설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분들이 여행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양로시설로 꾸밀 계획이다.”

그는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같은 말은 입에 담지 않는다. 회사 이름을 ‘총인간’으로 내건 그의 경영 철학 속에 이미 ‘환원’이 배어 있다. 휴롬은 최근 경상남도 및 산청군과 14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유명 컨벤션 시설로 부상한 휴롬인재개발원 인근에 휴롬체험관과 힐링센터를 세울 작정이다.

물론 자신의 힐링을 위한 공간도 마련돼 있다. 강서구 식민동 강변에 지은 별장은 특별히 풍기생들을 염두에 둔 공간이다. 멋진 선상 파티를 즐길 유람선도 구비되어 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제일 좋은のが 활용법”이라고 말한다. 김해동향회 모임에도 거의 빠짐이 없다. 개발에 믿려 자신의 생활과 뛰어놀았던 초등학교는 이미 사라졌지만, 고향에 대한 애착은 각별하다. 주변의 동문들은 “초등학교 선배 할매들한테는 인기 왕”이라고 입을 모운다.

마을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기술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사람과 자연을 외연하는 기술의 한계를 경계한다.

일찍이 광활성 작용의 조화로움에 감동한 그는 자연과 생태계에 관심이 깊다. TV의 관련 프로그램은 끊어지지 본다며 했다. “건강하다는 것은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자연의 것, 그대로’라는 모토는 탕아을 써서 먹는 우리 전통 방식에서 확인한 것이다. 휴롬 특유의 원천 기술이 우리 일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예사롭지 않다. 그의 저택에 입구에 놓은 텃밭 역시 자연과 일상을 티끌으로 삼는 원칙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휴롬의 성공신화는 어디까지 계속될까? 그는 머뭇거림 없이 “이제부터가 시작”이

60年 傳統을 자랑하는
건해산물 전문업체
(멸치, 김)

부산시 수협
증매인23번

대 풍 건 해

대표 조성근 (31회)
010-3835-5307

주소 부산시 중구 남포동 1가 60-1
전화 : 051-245-5307
팩스 : 051-241-6587

龍馬人 ‘공부방’ 덕형포럼 조찬회 100회 돌파

‘지식정보 배움터, 상호신뢰 나눔터’로 2007년 12월 출범
포럼멤버 80여명 참석, 서병수 부산시장 초청 기념강연회



몇주로 10년 만에 조찬모임 100회를 돌파한 덕형포럼은 용마인의 공부방을 넘어 용마기록의 ‘아고리’ 구성을 목표하게 하고 있다. 100회를 기념하여 덕형포럼 운영 주역들이 연사 서병수 동문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동문 상호간의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의 습득, 공유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동문 연락을 강화한다.”

2007년 11월 7일, 이 같은 취지로 시작된 재경 동문들의 ‘아카데미’이자 ‘아름 공부방’인 덕형포럼이 제100회 조찬 강연회를 열었다.

덕형포럼 회장(박인국, 25회), 전 유엔 대사는 4월 20일 오전 7시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7층 가네트 스위트에서 부산시장 서병수(25회) 동문을 특별 초청해 100회 기념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는 덕형포럼의 산파역을

맡았던 김경희(9회) 동문을 위시한 이상택(13회), 배재숙(17회), 전재호(21회), 재경 고문들과 윤성복(22회), 재경 회장, 문규원(23회), 재경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구본홍(20회), 정희원(23회), 변창구(24회), 이명규(24회), 박경재(26회), 김수인(26회), 김영한(29회) 등 80여명의 덕형포럼 주요 멤버들이 참석했다. 20대 총선 당선자인 정갑운(23회), 김설희(28회), 박성중(30회) 등문도 참석해 당선 축하 인사를 밟았다.

부산고 청조포럼 자극받아 전격 출범

덕형포럼은 지난 2007년 9월,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허법도(22회) 동

문이 재경부산중고등창회의 제12회 청조포럼에 인사로 초청되어 강연한 것이 계기가 되어 탄생했다. 청조포럼은 1996년 12월에 당시 YS정부의 경강식 경제기획원 장관이 첫 연서로 테이프를 끊어 우리보다 10년 더 앞서 출범했다.

허법도 동문은 강연 당시 저녁에 열린 ‘우리들의 만남’ 월례회에 참석해 청조포럼 강연 사실을 설명하고 포럼 개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만남’ 회장이던 김경희 동문이 포럼 개설을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참석자들은 즉석에서 서울대병원장이던 성상철(21회) 동문을 초대회장으로 선거하고 설립 준비 과업은 허법

이점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서병수 시장은 “울산 경남의 산업벨트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우물 등 서비스, 산업이 부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부산이 새로운 지역산업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경남권 산업벨트를 주도하는 허브도시가 되겠다”며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부울경 지역경제 중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시장은 2000년 부산을 글로벌 30위권 도시, 시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고용률 70%, 세계 3대 해양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근시안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전략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하며 실행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서병수 시장은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부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부산의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제하면서 “정보통신기술 맞물려 무한발전이 가능한 한 시대가 어느 지역보다 진취적인 부산 사람들에게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지정학적

도 동문과 스포츠조선 부장 김수인(26회) 동문에게 맡겼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 11일 오전 7시,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역사적인 제1회 덕형포럼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초청 연사는 당시 재경부 차관이던 김석동(26회) 동문이었고, 연제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한후 과제’였다.

이날 성상철 초대회장은 “지식정보화 시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용마동문들의 지식 정보의 배움터로서, 상호신뢰의 나눔터로서 덕형포럼이 출범한다”라고 친명했다. 제1회 강연회에는 한준석(2회) 전 환우대 경제비서관, 최영렬(5회) 송달대 이사장, 오영은(6회) 전 이수중 교장, 박영식(7회) 전 군교부 장관, 박성조(8회) 베를란대 종신 교수, 이상택(13회) 셈병원 이사장, 서시주(13회) 전 연합통신 편집실장, 권근술(14회) 전 한겨레신문 사장, 원진일(15회) 주9세증 회장 그리고 홍용찬(16회) 재경동창회 회장과 8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사회 저명인사, 여류인사들도 초빙

1회부터 100회에 이르기까지 유일하게 ‘개근’ 한 김수인 동문의 회고에 따르면,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을 초대회장으로 선거한 것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 김수인 동문은 “성 원장님의 인품이 훌륭한 테다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동문들이라면 ‘눈도장’이라도 찍을 요람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성상철 초대회장의 전격적인 방문과 요청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전재호(21회) 2대 회장은 포럼의 조직과 재정을 안정적으로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연사 소개와 강연 요지를 파이낸셜뉴스에 보도하는 등으로 막강한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덕형포럼 회장은 동기회의 추천 형식으로 추대하는데 3대회장 정희원(23회) 서울대병원장과 4대회장 변창구(24회) 서울대 부총장은 각각 동기를 전원회의와 동기 중 회고의 ‘가오 마담’이라는 후광을 받아 회장을 맡았다.

올해 정월부터 5대 회장 직무를 수행한 박인국(25회)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역시 전원회, 박종기 동문을 비롯한 동기생들의 엄청난 지원에 힘입어 포럼의 운영 방안과 강연 수준을 굽지의 포럼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부에서 외교전을 펼친 밤군의 경륜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덕형포럼은 동문을 이외에도 이의령 전문화부 장관, 사광일 재무부 전 장관,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 등 저명인사와 김병수(24회) 동문의 부인 전정애 박사 등 여류인사들도 연사로 초빙되었다.

김수인 동문은 문규철(23회) 이명규(24회), 김병수(24회), 좌상봉(25회), 김기표(26회), 박영식(3회), 김현주(47회) 동문의 노고가 견디고 말하고 특히 조찬 비용을 두 차례나 전액 부담한 김병수 동문과 한 차례 부담한 김정태(25회) 동문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부울경 산업벨트의 허브도시로 이끌겠다”

서병수 부산시장, 덕형포럼 특별강연에서 장기전략 제시

한 부산의 비전과 발전전



서병수 시장은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성성직을 내놓았다.

서병수(25회) 부산시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서 시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덕형포럼 제100회 기념 특별강연에 초빙돼 ‘변화의 혁신, 위대한 부산의 새 시대’라는 연제로 향후 부산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편향적인 정책기조를 비판했다.

서병수 시장은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부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부산의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제하면서 “정보통신기술 맞물려 무한발전이 가능한 한 시대가 어느 지역보다 진취적인 부산 사람에게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지정학적

서병수 시장은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부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부산의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제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부산의 브랜드를 알리지만, 일부 영화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영화인들의 보이콧 움직임에 단호한 입장 을 밝혔다.

“죄인 된 심정으로 술로 세월 보냅니다”

새누리당 전 대표 김무성 동문, 24회 동기회 나와 친구 심중 토로해
“돌고 돌아서 中區에 왔다” 감회 밝히며 정치 지각변동 가능성 시사



새누리당 전 대표 김무성(24회)이 충남 충주시에서 열린 동기회 모임에 참석한 정치부 기자들에게 명물이 되었다. 사진은 김무성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동기생들.

새누리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은인 자리를 찾았던 김무성(24회) 동문이 동기생들과 어울린 자리에서 저 간의 경위와 자신의 심중을 담담하게 펼쳐놓았다.

4월 25일 부산시 중구 창선동 삼송초밥에서 열린 24회 동기회 4월 모임에 참석한 김무성 동문은 “죄인이 된 심정으로 술로 세월을 보낸다”며 친구 생활의 일면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딴 데 가면 죄인 대접을 받지만, 친구들은 만나면 내 말을 들어 주니까 생각나는 건 친구들뿐”이라고 말했다.

“중구는 맨날 친구들과 어울리던 곳”

김무성 동문은 그동안 ‘본의 아니게’ 남구와 영도구에서 각각 출마했던, ‘정치적 피해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번 충선에서 중구가 자신의 선거구에 포함된 감회도 밝혔다. 그는 “돌고 돌아서 이번에 지역구가

세 번째가 되는데, 중구는 내가 맨날 친구들과 어울리던 곳”이라며 각별한 지역 앤고를 강조했다. 그는 “중구에서 나오게 될 좋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언이가 다시 고향을 찾아온 같아 정치인으로서는 행복하게 생각한다”면서 ‘안태고 향’으로 돌아온 기분은 밝히며 평소의 ‘무대’처럼 한결 밝은 표정을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참모들과 천박계 인사들과 관련된 대목에서는 격한 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14년 새누리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천박 세력들이 자신을 뺏어뜨리려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자들의 이름과 대화 내용까지 거론하며 울분을 숨기지 않았다.

‘진박’ 전횡으로 파행을 겪은 공천 과정을 말하면서 “최고위원 9명 가운데 내 편은 김을동 의원뿐이었다”며 무원고립(無援孤立)이면 당시의 심중을 토로했다. 그는 자신



참여 중인 동기회 모임에 참석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친구들을 만나면 내 말을 들어 주니까 생각나는 건 친구들뿐”이라고 말했다.

“보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당장간의 대화와 소통에 대해 언급한 대목에서는 잠시 말을 끊고 침통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는 “여러 차례나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사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둉겠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을 거칠게 지탄했다. 비서실 고위층의 실명을 거명하며 직설적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총선 패배 이후, 주요 관심사로 꼽히는 천박 세력의 항방에 대해서는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바닥 더 내려간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김종인, 보통 사람 아니다”

라며 야권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평가하면서, 현관으로는 정치권의 지각 변동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보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단언하고, ‘중도 우 클릭’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의 노선과 정체성의 개혁도 주문했다. 특히, 조선, 충남, 철강 등 구조조정으로 내몰린 부울경 지역의 주력 산업의 힘에 파장을 우려하고, “경제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격차 해소가 줄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자리를 옮겨가며 50여명의 동기들과 술잔을 나눈 김무성 동문은 암중모색 친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무대’의 ‘본색’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 주겠다는 결기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새로움이 익숙한 새로운 세대에게

The New Compact Cars from Mercedes-Benz.
Ready for a new generation.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한성모터스(주) 오용승(46회) 010-6500-6404



용마탑구 / 세계 유일의 석조천문 우리예술박물관 개관한 천신일 동문

“시시때때로 달리 다가오는 돌 빛깔이 좋았다”

일본에 팔려간 걸작들 환수, 재산가치 수천억 원 기꺼이 사회 환원



(주)세종 회장인 천신일(15회) 재경동창회 고문의 일과는 요즘도 한가로운 편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우리예술박물관 입구에서 만난 그는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에도 바쁘다. 그의 결정과 지시가 뛰어난 힘으로 일본에 대한 이해도 많았던 그. 그런 사이사이에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고업을 마침내 매듭지은 성취지만이 누리는 여유로움도 배어난다.

그를 방문한 그날 첫선을 보인 점심 식탁 만해도 그렇다. 내로라하는 갑부들의 저택과 외국 대사들의 광관이 들어선 복한산 자락 성북동 부자동네에 간이음식점이 있을 텐데 없다. 박물관 직원들이 점심 한 끼 해결하려면 삼선교까지 한참 내려가거나, 배달 주문을 해야 한다.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할 방향으로 좋은 텅비실을 주방으로 개조했다.

밥과 국은 주방에서 마련하고 밀반찬은 직원들이 저마다 준비해 온 것을 나누어 먹는다. 다양하다 못해 화려하다. 전라도 한식 당밀반찬은 저리가라 한다. 직원들 모두가 식판에 음식을 담아와 천 고문의 청무실 대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말 그대로 ‘한 식구’다. 소탈하면서도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그의 일상을 엿보게 한다.



천신일 동문은 아침 일찍 박물관에 나올 때가 많다. 북한산 7~8부 능선에 위치한 옛돌박물관에서 바라보는 명승 풍광이 일품이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 왼쪽은 보물급 문인석 등이 출비한 환수유물은 오른쪽은 각양각색의 돌첨승들이 저고 있는 박수준

인근 청와대 탓에 임반 밤파 못해

우리예술박물관은 전세계를 통하여 하나밖에 없는 석조천문박물관이다. 북한산 자연풍광을 그대로 품은 5천5백평의 드넓은 부지에 연간 평 1천평 규모의 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국내 굴지의 조각공원을 놓가하는 아외전시장과 야간 가든파티를 즐기기에 기가 막힌 전망을 확보하고 있는 다목적 컨벤션 공간도 거느리고 있다. 꼬박 5년이 걸린 역사(叙事)의 결정체이다.

‘복한산 자체가 거대한 임반 텅여리이다. 토목공사에 애를 먹었다. 청와대가 떨지 않아서 쪽으로 임반을 터뜨릴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정(征)으로 쪼아서 파냈다. 시간은 물론이고 품삯도 엄청 나갔다. 토목과 건축 비용으로 2백억 원이 들었다.’

성북동 시대는 지난해 연말에 시작되었지만, 옛돌박물관의 연륜은 만만치 않다. 2000년에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개관한 세종예술박물관이 지금의 모태이다. 또한 그가 우리 석조 유물과 인연을 맺은 것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찍이 고서화와 골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짬나는 대로 서을 인사동을 드나들었다. 1978년 어느 날 단골가게에 갔을 때, 주인이 석조를 엘리먼 펴놓고 흥정을 벌이고 있었다. 석조들은 무게와 크기 때문에 실물을 가게에 들 수 없어 사진으로 거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사단(事端)은 주인과 흥정을 벌인 사람이 일본인이었던 것.

일본인이 나가자마자 그는 놀랄같이 가게주인 목숨을 갑아쥐고 “왜 우리 유물을 일본놈한테 팔아 넘기니? 배알도 없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내가 다 사겠다. 얼마냐?’며 육박질렀다. 짧은 활기로 “다 내놔!”라고 했지만, 27점의 가격이 1억7천5백만 원이라는 대답에 그도 손이 뻣벌 수밖에 없었다. 골동품이 한창 붐을 이뤘을 때였을지도 모르겠다. 당시 사무관 광무원 초임이 11만원쯤이었으니, 한푼도 쓰지 않고 5년은 족히 모아야 할 거금이었다.

‘너무 비싸니까 조금 깎아 달라고 해서 1억5천5백원을 주고 모두 샀다. 내 집 청원에 옮겨놓고 짬나는 대로 완상하는 재미에 빠졌다. 아침 해 뜰 때와 저녁 해 질 때, 또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돌빛깔이 저마다 다른 게 보기에 참 좋았다.’

일본에서 되찾아온 환수 유물 돌보여

천 고문이 ‘돌사람’과 연분을 나누게 된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그로부터 사채를 털어 수집한 석물이 지금 마치 1천2백 점이 넘는다. 이 방대한 수집품은 성북동과 용인시에 나뉘어 전시되고 있는데, 성북동 소장품 가운데 벽미는 단연코 환수 석조불불이다. 일본으로 팔려갈 뻔한 돌사람과 친해진 그가 이제 일본에 팔려간 것들을 되찾아 온 것이다.

2000년 8월경에 우리 석조 문화재를 많이 가진 일본인 사업가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그는 곧장 환수작전에 돌입했다. 구사카 마모루 씨가 사는 나고야를 부지런히 찾아가 설득했다. 지병으로 고생하던 구사카 씨를 초청해 국내 유명 한방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고, 부부가 모두 좋아하는 김치 선물세트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가격이 장애물이었다. 일본의 거래 가격이 우리보다 5배나 높았다. 천 고문의 큰길긴 작품은 1년 넘게 계속되었고, 이에 감격한 구사카 씨가 국내 거래가로 문인석과 장군석, 풍자석 등 70점을 내놓았다. “교포, 도쿄 등지의 박물관에는 명품으로 꼽히는 우리 석조들이 수천 점 더 있는 걸로 안다”는 천 고문은 한 점이라도 더 팔려발도록 고삐를 높추지 않을 작정이다.

성북동 박물관 1층 중앙에 자리잡은 환수유물관의 문인석 47점은 이처럼 헤아픈 사연과 함께, 본래의 주군을 잊은 떠돌이 신세라는 운명이 겹쳐져 암속합과 비장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저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빼어난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사뭇 비감한 냉기를 더욱 끌어내리는 듯하다.

2층에 전시된 거대한 장군석 2점의 운명 역시 다르지 않다. 고려 후기 제왕의 묘역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장군석은 당시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겸작인데, 인터넷계도 그의 주군이 누구 <11페이지에 계속>

마침내 '빅 리그' 도약 꾀하는 덕형리그

2017년 16개 팀 구성… 47회 창단, 40회 A, B팀으로



점시나마 존속 여부의 위기를 겪은 덕형리그가 명실공이 '세계 유일'의 특장학교 동문 리그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 특히 이문열 회장(사진 오른쪽)은 사재를 털어 덕형리그의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매월 최우수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금은 한의사 김종호(31회) 동문이 협찬한 최고금 50만 원(왼쪽 사진).

특정 학교의 선수에게끼리 벌이는 리그보는 '세계 유일'의 야구 리그전인 덕형리그가 바야흐로 '빅 리그'로 도약할 꿈을 꾸고 있다. 현재 10개 팀으로 운영되는 리그전을 16개 팀으로 늘리는 것이다.

덕형리그 이문열(29회) 회장은 "덕형리그가 이제는 안정관에 진입했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죽어진 노하우를 활용해 40회대 기수들의 야구단 창단을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교기인 야구가 후배 기수들에게도 은전하

게 전승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문열 회장은 2017년부터 리그 참가팀을 16개 팀으로 늘릴 계획이다. 47회 동기회가 야구단을 창단하기로 이미 뜻을 모았고, 40회 동문들은 A팀과 B팀으로 양분할 계획이다. 또한 기변야구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32회 야구팀을 덕형리그에 참여시키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

덕형리그는 47회 야구단 창단이 40회대 기수들에게 상당한 자극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

리그 참가 구단이 16개이다. 덕형리그는 매월 MVP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는데, 부상으로 수여하는 보상 팜체는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종호(31회) 동문이 협찬한다. 4월 MVP는 야구야구단 김현진(52회) 동문이 차지했다.

이문열 회장은 경고 야구부 출정 고사에 참석해 격려금으로 금일봉을 전했다. 또한 덕형리그 입원진들이 분담한 경비로 경고 야구장 그물망이 팔끔하게 새로 단장됐다.

★2016년 덕형리그 집행부

- 회장 이문열(29회)
- 고문 권동립(29회)
- 수석부회장 임종태(31회)
- 부회장 송종현(32회)
- 사무국장 임정석(36회)
- 사무처장 김봉근(40회)
- 경기이사 장정석(33회) 신영석(40회)
- 경기운영이사 장창용(36회)
- 심판장 박순원(25회)
- 심판이학용(32회) 김성필(49회)

<10페이지에서 이어짐>
였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특수포장을 하고 용인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크레인을 둘 위해 설치하는데 수송비만 5억원 넘게 든 것을 보면, 그래도 이들은 '기하신 끔'이다.

일어버린 행수 되살리는 벽수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조성된 왕실가족과 고관대작의 무덤을 지킨 동자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동자관은 출사 요청들의 통산 같다. 쌍쌍투를 둔 동자석들의 갖가지 양증맞은 표정도 그렇거니와 연꽃, 병방이, 주마니, 부채와 같은 물고 있는 지들도 매우 흥미롭다.

유불선(儒佛仙)과 무속신앙이 혼재된 동자석은 무덤의 주인공과 함께 사이를 오기며 십부름하는 역할이 부여돼 있으므로 수복강녕(壽福康寧)과 길상(吉祥)을 기원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동자관 앞에는 '돌과의 대화'를 나누는 벽수 형태의 작은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다.

벽수관은 묘제 석물이 아닌 돌장승들의 동네이다. '벽수'는 '돌장승'을 일컫는 경상도 방언인데, 잡귀나 액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애들이 마을 수호신이다. 이처럼 소중한 존재인 '벽수'가 경상도에서 '바보 명령이'로 통하는 깡죽은 개구쟁이들이 뺨을 때리고 밤로 걸어지도 무표정 그대로 꼼 빽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돌장승'이라는 표준이 대신에 '벽수'로 부르게 해놓아 한 걸 더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서울 시내 최고의 명당이다"

천신일 고문은 "석조물을 장식 소재로만 여기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선인들의 삶의 철학과 지혜를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감만족' '제주도의 푸른 밤' '마음의 정화' '영화미소' '모육재계' '승승장구의 길'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 놓은 이곳에 들리면 끊임없이 '효험'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다.

"어느날 한 지관이 찾아와 박물관 터를 보고 '서울 시내 최고의 명당이다. 위에 올라가서 보면 좌충용, 우백호 형상을 하고 있어 기운이 매우 좋다'는 말을 했다. 이곳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렵기 소문난 시험에 거뜬히 합격하고 또 요직에 발탁된 것을 보면 확실히 '기운'이 있다."

천 고문은 올해 초 부지와 시설, 소장 유물 일체를 재단법인 우리옛돌박물문화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흰원했다. 아직은 미답(未踏)의 영역으로 방치된 석조 유물의 학술적 연구를 진작시켜 문화예술적 가치를 조명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진작가들한테는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작정이다.

그런데, 궁금하지만 차마 물지 못한 게 하나 있었다. 우리옛돌박물관의 재산 가치는 얼마쯤 될까 하는 것이다. 5천5백평 부지에 다 1천2백여 점의 석조 문화재, 거기에다 김환기, 남관, 변종하, 이우환, 김창열, 유영국, 이대원, 오수환 등 근현대 화단의 거장들의 대작, 수도관에서는 보기 힘든 전통 자수품 등을 다 합치면 과연 얼마나 될까?

김정현문가들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았다. 전월역 부근의 복벽방에 들어 보았다. 요새 성벽동 땅값이 얼마나나고 평당 2~3천만원은 호가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10년 후, 졸업 60주년에 꼭 다시 만납시다.

"우리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제20회 동기회 졸업 5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 2016년 5월2일

• 본부회장 장 병호 • 재경회장 서 경석

“용마인 자부심으로 꿈을 펼쳐 나가자”

개교 74주년 기념식, 이병찬 윤성복 회장 “모교 르네상스를 위하여!”



서강태 교장은 “모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출범한 이래 꿈과 함께 성과가 있었자”고 평가했다.

모교 개교 74주년 기념식이 4월27일 오후 모교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본부동창회 이병찬 회장과 재경동창회 윤성복 회장을 비롯해서 육이오전쟁 참전동문 기념사업을 주관한 배중현 채경 7회 동기회장, 남진현(1981) 본부 자문위원장, 류정근(33회) 모교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부모 대표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개교기념일을 축하했다.

서강태(30회) 교장은 기념사에서 “출신

사전 전 이곳에서 울비의 나래를 편 본교는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힘써 왔으며, 인성교육과 학력향상에 열성을 기울인 결과 명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회고하면서 “개교 당시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교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모든 교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강태 교장은 그동안 많은 동문들이 장학사업과 학교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데에 감사하고 “자율형 공립고로 출



개교기념식에서는 문문고교 야구팀에서 우승한 야구부가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발한 2013년도 이후로 부산시교육청 학역 우수학교로 선정되었고,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대학에 많은 졸업생들이 진학하는 꼴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자축했다.

서 교장은 또 재학생 후배들이 모교의 주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가꾸고 다들이 나간다면, 여러분들 역시 후날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로 남을 수 있다”며 “용마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꿈을 펼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병찬 본부회장과 윤성복 재경회장 그리고 류정근 운영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모교 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해 재학생 후배들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문문고교 야구팀에서 우승한 야구부 주장 이승호 군이 우승기를 서강태 교장에게 전달했으며, 참석 내빈들은 축하 시무룩을 함께 절단했다.

“경고 교내 조형물 재정비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 흉상건립 계기, 일부 이전 불가피
국가보훈처, ‘용마 6.25참전용사 명비’ 9월 제막



조향률 장비 협의회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으로 열렸으나, 전문기구의 상설화가 제기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 흉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과 교정에 조성돼 있는 각종 조형물의 배치 실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교 교정에는 14회 동기회가 건립한 용마상을 포함해서 10여 개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모교 당국은 4월27일 서강태 교장 등 학교 관계자와 이병찬 본부회장, 윤성복 재경회장 등 동문 대표, 학부모 대표와 학생 대표 그리고 부산보훈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형물 정비 관련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부산지방보훈청이 오는 9월 모교에 제막할 예정인 육이오 참전 용마

학도별 ‘호국용사비’ 건립 위치와 관련해 모교 당국에 협의를 요청해 와 이루어진 것 이었다. 보훈처는 육이오전쟁 참전 전몰 동문들을 기리기 위해 용마가족들이 조성한 ‘성찰의 집’에 호국용사비를 포함시켜 놓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참전 동문 호국기념비는 ‘용마 육이오 참전용사 명비’로 제정하기로 하고, 본부회장을 포함한 동문대표 4명, 모교 교장과 교감 그리고 보훈처 인사 2명 등 8명으로 명비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명비 건립 위치는 추진위원회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배중현(7



기밀 사업으로 조성된 교내 조형물 가운데는 설치 적절성마저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있다.

회) 동문은 ‘성찰의 집’ 조성 취지 등을 알리는 안내 표지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모교와 동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 흉상은 오는 11월22일 서거 1주기에 제막하기로 확인하고, 존치 장소는 흉상건립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모교에 설치될 기념물 등이 앞으로 늘어남 것으로 내다보고 기존 조형물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일으킨 특정인의 개인 시비(詩碑) 등 부적절하거나 난립된 일부 조형물들은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모교 교정에는 용마상과 교훈석(9회), 안용백 초대교장 흉상, 성합의 집, 이태석 신부동상, 고례상(17회), 교문 앞 안내 조형물(18회), 국산관 앞 용마 교바비(35회), 국산관 내 김택수 동문 흉상(1회) 등이 설치돼 있다.

단국대 건축과 김정신(24회) 교수는 “조형물의 재배치 문제는 문화재로 지정된 터 형관의 활용 여부와도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차체에 모교 갭포스 재배치 문제를 다룬 전문기구를 동창회가 주도해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경고 운동장 전면 잔디구장으로 단장

교육청 지원금 등 6억5천4백만원, 올 연말 착공
덕형리그 회장단 협찬, 그물망도 전면 교체공사



경고 운동장이 6억원이 넘는 가격을 들여 전면 인조잔디로 가꾸어진다. 부산시 교육청을 설득하는 티 통문들이 노고가 있다.

경남고 운동장이 전면 인조잔디로 단장되고 그물망도 전면 교체된다.

부산시 교육청은 2015년 하반기 학교 운동장 개보수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 모교에 5억5천327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내야에 국한된 인조잔디를 외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운동장 전면을 녹색 그라운드로 단장하게 되었다.

6억5천4백만원이 소요될 공사비가 문제 교육청 지원비 이외의 1억73만원은 모교가 대응투자하기로 했다. 모교

가 투자할 재원은 지난 2009년 내야 잔디구장이 조성된 이후로 적립한 운동장 사용료와 발전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당초 교육청은 모교 당국이 요청한 전면 인조잔디 조성에 난색을 표하고 기존의 내야 보수비만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모교 당국과 운동들의 관질긴 설득이 주효해 전면 조성 결정을 이끌어냈다. 기존의 내야 인조잔디는 3억7천9백만원을 들여 2009년 1월에 준공되었으나 노후화가 계속돼 보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보수 사업으로 직선 90m 트랙 2레인과 곡선 170m 트랙

2레인도 전면 보수된다.

모교 당국은 인조잔디 재질의 유해성 결과, 중금속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둘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조잔디 조성 공사는 야구부의 연습 일정을 감안해 올해 경기 일정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교 야구장 그물망도 전면 보수, 교체된다. 훌 베이스 후

방과 외야 그물망 전체를 교체할 보수공사는 턱형리그와 29회 야구팀 '아우29'가 공사비 1천7백만원을 특별 협찬해 시행된다. 그물망 교체 공사를 위해 덕형리그 회장 이문엽(29회) 등문이 1천만원을 회사했고, 수석부회장 임종태(31회) 등문과 부회장 송종현(33회) 등문이 각각 2백 만원을 헌진했다. 또 '아우29' 회장 김부겸(29회) 등문과 박기찬(29회) 등문이 각각 3백만원과 1백만원을 협찬했다.

야구부 후원금 결손사태 심각

전당 후원회 구성 등 타개책 절실히

야구부 후원 문제가 등장화의 주요 담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부동창회의 용마장학회 이자수입에 의존해 온 야구부 후원 문제는 계속되는 저금리 사태와 맞닥뜨리면서 실효적인 타개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해마다 2천만원 이상의 결손액을 빚고 있는 야구부 후원금은 누적 결손액이 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본부동창회는 부산지역 다른 고교 동창회의 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전당 후원회 구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아직 미흡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2월 말에 열린 본과위원회 회의에서는 본부동창회가 조성한 발전기금의 이자로 당면한 부족분을 충당하고 앞으로 조성될 야구부 후원회 기금으로 보전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시동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

경남고 야구부 청렴도 최우수

경남고가 2015년 학교 운동부 청렴 최우수 학교로 뽐냈다.

모교는 부산시 교육청이 야구와 축구 등 5개 종목에 대해 2차례 결체 심사한 결과, 야구 종목에서 청렴도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기장을 수여했다.

청렴상 시상 제도는 운동부 경비 집행 등 운동부 운영 전반에 걸쳐 청렴 여부를 심사해 우수 학교에는 출련비 등을 지원하고, 청렴도 개선 의지가 미약한 부과 학교의 대해서는 신입생 배정 불이익과 지도자 공개 채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시 교육청의 심사 이외에 정부 관련 부서의 조사도 병행된다.

모교 야구부 이환용(32회) 부장에 따르면, 야구부와 관련한 후원금과 격려금 등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학교 회계로 처리해 투명성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선수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반참여를 요청하는 것 등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솔선해 왔다.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 모교는 출련비 1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전국명문고 야구열전 우승, 쾌조의 출발

경북고 6대2로 제압, 새내기 최원영 최우수선수상 기념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모교 야구부의 선전이 기대된다.



응원석의 주요 관중은 선수들의 부모들이다. '수업 결손'이라는 학부모들의 항의 때문에 응원문화가 위축되고 있다.

경남고가 제3회 전국명문고 야구열전의 평권을 차지해 올 시즌 평준화를 과시했다.

모교 야구부는 지난 3월 13일 부산 구덕 야구장에서 격렬한 결승전에서 강호 경북고를 6대2로 꺾고 명문의 정상에 올랐다. 경북고는 지난 대회에 이어 준우승에 머물렀다. 1차전에서 부산고를 끌드게임으로 꺾고 산뜻하게 출발한 모교는 준결승에서 경기고를 끌려세우고 결승에 진출했다.

7회까지 20회로 팽팽한 투수전을 벌인 결승전은 8회에 들어 균형이 깨졌다. 주자 2루,

3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번 대회의 하어로인 1학년생 루키 최원영 군이 주자일소 3루타를 터뜨려 경북고의 파이팅을 잡아쳤다. 최원영 군은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했고 이승호(3학년) 군이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결승전이 열린 구덕야구장에는, 일요일 일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 아쉬움을 남겼다. 1루측 관중석에는 모교 야구부 학부모후원회(회장: 이재기) 회원 80여명이 복을 치며 아辱들의 활동을 응원했다.

모교 당국에 따르면, 재학생들이 야구 경기를 참관하고 응원을 펼치는 것이 자칫 수업 결손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응원에 '동원'한 다며 비판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회장: 전재호, 21회)가 고교 야구 종목을 위해 개최하는 명문고 야구열전은 모교를 위시하여 경기고, 서울고, 경북고, 상원고에 대구상고, 광주고, 북일고 등 전통의 강호들이 레미다 고교 야구 개막을 알리며 부산에서 열린다.



경남고 영재학급 개설, 우월반 효과 기대

서강태 교장 열정 결실, 3단계 전형 거쳐 1학년 15명 선발



영재학습 개설에는 서강태 교장·사진 원희의 집념이 크게 작용했다. 심종선 교육정보부장·사진 오은희도 기법 많은 집무를 기꺼이 수용해 주었다.

올해 신학기부터 경남고에 영재학급이 개설되어 우수 신입생 유치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모교에 개설된 영재학급은 수학 분야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을 발굴해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과제 집착력과 높은 학습동기를 토대로 해 탐구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모교에 부임하기 전에 교육부 지정 영재교육 연구 부서를 운영한 경험을 가진 서강태 교장은 “영재학급은 교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염두에 두고 추진했으나, 부과 업무가 가중되는 사이사이로 담당 과목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동반하지 못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심종선 교육정보부장과 수학담당 교사들이 통찰력 주체

R&E(파제연구중심) 등 연간 100 시간 이상 시행해야 한다. 영재학급 운영 비용은 교육청 지원금 900만원과 교비 500만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서강태 교장은 연구과제 중심 영역을 부산대 수학과 교수 김현민(38회) 동문이 담당하기로 해서 기대가 크다고 밝히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겸비한 통합적인 인재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교 당국은 영재학급이 개설됨에 따라 과학고를 지망하는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중계 지방생들의 경우,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상당한 도움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영재학급생 1학년 학급순신승민, 심지섭, 임종현, 임현우, 김성준, 서상우, 정성보, 박세미루, 박형빈, 홍승모, 이동근, 김두원, 이주원, 장민재, 조준현

경중 바둑부 소년체전 부산대표 석권

학생부 최강자 최은솔 군, 시민바둑대회에서도 우승



1위 선발자 최은솔 군



2위 선발자 이길서 군



3위 선발자 서기현 군

24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8회 부산시장 배 시민바둑대회 학생부 우승을 차지해 명실공이 최고 위의 기량을 과시했다. 이길지 군은 2위에 올랐고 새내기 금현우(1학년) 군이 3위에 입상해 일약 학생부 디크호스로 부상했다.

부산시와 국체신문이 주최한 시민바둑대회는 연륜이

오래되고 규모가 큰 아마추어 바둑축전인데 지난 대회 참가자가 250여명이던 어린이부 참가자가 올해는 450여명이나 출전해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로 한껏 달아오는 바둑 열풍을 실감하게 했다.

부산대표로 선발된 모교 후배들은 소년체전에 대비해 강화훈련에 몰입했다. 아직까지 훈련 경비는 부산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충원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강지성 사번은 “프로기사 조정 지도 대국 등 고단위 처방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막강한 위력을 보여준 이후로, 바둑이 두뇌발달에 좋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는 판단이 대세를 이루면서 전국적으로 바둑부를 청단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소년체전 선발전에서 우승한 최은솔 군은 4월

경남고-부산고 야구 라이벌전

8월27일, 드림볼 파크 개장기념 이벤트



부산시 기장군에 들어서는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개장을 기념해 모교와 부산고가 친선 라이벌전을 갖는다.

기장군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드림볼 파크는 오는 8월27일 개장 준공식을 갖는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쇠판 행사가 열리고, 6시에 개장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7시부터 개장 기념 이벤트로 리어풀 빅 배치가 펼쳐진다. 선수단은 OB와 YB를 막라해 구성될 예정인데, 양교 출신 야구 스타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주최하는 경남고-부산고 야구 라이벌전은 지난 2011년 11월13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바가 있다. 이날 경기는 모교 9대 10으로 역전승했는데, 피겨 스타 김연아 선수가 시구를 하고, 이대호 선수가 투수로 나서 화제를 모았다.

서해랑희망장학금 1,080만원



재경경구회 회장 서해랑(9회) 동문이 또 화망장학금 1,080만원을 회사했다.

서해랑 동문은 지난 2월 15일 모교 체육관에서 열린 졸업식에 참석해 희망장학생으로 뽑힌 재학생 4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서 동문은 이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효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특별강연도 했다.

서해랑희망장학금은 성적이 크게 향상된 학생과 모범적인 활동을 보인 학생 그리고 친구들과의 친화력이 높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데,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서 동문은 앞으로도 계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代表 金 佶 秀 (25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0번지
양정꽃시장 4층 13호 TEL : (051)868-4601~2
FAX : (051)868-4603 H-P : 010-4552-7272

김해지역동창회 “진짜 너무 잘 나간다!”

산행, 당구에 낚시, 바둑대회까지 ‘마실’ 가듯이



김해지역 동문들은 아름찬 본부회장의 방문에 환호하며 어김없이 2차와 3차를 즐겼다.



김해지역 동문들은 마실 가듯이 동창회관에 들러 노소동락을 실현하고 있다.



미성현(23회) 동문은 자상한 살림꾼이고, 김영기 동문은 드든한 후견인이다.



김해지역 동문들은 모임 ‘건수’를 찾는데 소중한 재주를 발휘한다. 낚시터에 이어 바둑대회도 준비 중이다.

김해지역동창회 동문들은, 마치 마실 가듯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어울린다. 어느 지역동창회 같으면 1년에 한번쯤이라도 시도해 보기 쉽지 않을 행사를 가례며 뺨아내듯이 즐겁고 새롭게 이어간다.

다들이 나서는 산행은 말할 것도 없고, 당구대회는 올해 두번째 열었다. 지난 5월 8일에는 진해만에서 도다리 낚시대회까지 열었다. 바둑대회도 예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청 휴양지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 간 워크숍을 가졌고, 여름에는 등강으로 레

프빔을 떠났다. 생일날에도 모이고, 해외출장에서 돌아왔다고 또 만난다. 거동이 불편해서 모임에 참석하기 힘든 원로들을 방문해 문안도 드린다. 밴드를 통해 동문들의 통향을 시시콜콜 모두 ‘까발리므로’ 숨을 데가 없다.

이처럼 친동기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친화력과 결속력을 내뿜을 수 있는 때는 ‘동창회관’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김해지역동창회는 지난 1월 17일, 김해시 내의 동 한국아파트 1차 상가빌딩 415호에 다시

아지트를 마련했다. 운영난으로 지난 가을 문을 닫은 사무실을 이곳으로 옮겨 다시 개설한 것이다. 이상운(23회) 동문이 관장, 손옥명(40회) 동문이 부관장 소임을 맡았다.

김해지역동창들이 ‘동창회관’으로 일련하는 사랑방을 다시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은 휴롬 회장 김영기(23회) 동문의 후원 덕분이었다. 김영기 동문은 임대보증금은 물론 월 임대료도 지원한다. 냉난방 결용 에어컨(식가 160만원)까지 회사했다. 여기에다 이 상운 동문이 실크대와 내장 비용(86만원)

및 냉장고를 지원했고, 박광수(29회) 동문이 50인치 TV를, 최연삼(29회) 김동욱(30회) 동문이 각각 노트북 1대씩을 회사했다. 차의수(29회) 박희구(29회) 최민석(35회) 동문도 필요한 용품 등을 지원했다. 독서실로 활용할 각종 서적을 기탁한 동문들도 많다.

지난 4월 12일에 열린 월례회에는 이병천(23회) 본부회장이 황유명(29회) 사무총장을 대동하고 참석했다. 김해지역동문들은 전례가 없는 ‘카빈’의 방문을 열렬하게 환영했다. 이병천 회장은 기회가 닿는 대로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도 동문들은 어김없이 2차를 함께 했다. 2차 술값 85만원은 김영기 동문이 협찬했다.

김해지역동창회는 지난 2월 19일 경포장에서 열린 총회에서 조관제(25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을 모두 유임사했다. ‘잘 나가는’ 김해지역동창회의 폐속질주는 당분간 변함이 없을 듯하다.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30회가 되겠습니다.”

- 웅치자 30회, Hurrah 경고 !

졸업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4월 30일)

• 본부회장 최우철 • 재경회장 최거훈



사하지역동창회, 이번에는 1박2일 가족여행

강원도 영월·정선 일원, 가족사랑 '깨소금' 처방될 듯



사하지역동창회가 1박2일 가족여행을 펴난다.

오는 6월 18일 사하구청 앞에서 출발하는 이번 가족여행은 지난해 예정된 기획행사였으나 메르스 사태로 취소된 것을 부활시킨 것이다.

진양호(34회) 사하지역동창회장은 "선후배 간의 화합과 유대를 도모하고 동문가족들도 사랑을 더욱 든든하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소통의 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했다.

영월의 청명포 등 단종의 유배지와 장릉



'도약하는 새부산'의 주민인 사하지역 동문들은 학생 심사위원으로 동창회 살림을 꾸려 나간다. 유대감과 결속력이 뛰어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모임에 참석하는 동문들이 많다. 왼쪽 사진은 청기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한 회장단과 나비들.

을 둘러보고 화암동굴과 정선 모임장도 를 를 예정인데, 여행단은 선착순 40명으로 제한돼 있다. 사하지역동창회는 지난 4월 17일 천마산을 산행하고 송도 해안 갈맷길을 걸으며 볼랄 야유회를 즐겼다.

한편 지난 1월 21일 스타필드에서 이

길상(6회) 경아회 고문과 이병찬 본부회장, 서강해(3회) 경고 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겸한 신년인사회를 열고 진양호 회장 등 집행부를 유임시켰다. 새누리당으로 옮긴 조경태(40회) 의원도 참석해 인사를 나누었다.

어디서

무엇을?

〈9회〉

△박성조=베를린 자유대학 종신교수, 마녀동생인 박성조 동문은 모교에 진학시키고, 벳바라지를 해주었던 박성필 용이 지난 2월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계하였다. 향년 100세! 2월 6일 하관식을 끝내고 박 동문은 Berlin으로 귀국했다. 박 동문은 기장군 대변에서 태어났다. △서해당=경구회 회장, 부인 김숙자 여사가 3월 6일 하오 7시경 급환으로 태계했다. △희성숙=5월 1일 자녀 결혼, 부산 양정동 시크릿 브라이드

〈10회〉

△김상태=주소 이전,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42, 삼현아파트 105동 1104호. △박현재=전화번호 변경, 010-3343-5501 △방석순=전화번호 변경, 010-4220-0986

〈13회〉

△전복용=4월 2일 딸 결혼, 프리다야 2F

〈14회〉

△김일암=3월 18일 모친상, 부산 인왕병원 △박해동=3월 23일 모친상, 울산 서울산보람병원(언양) △故정태수=미국 테네시주 뉴스빌에 거주하면서 부인이 2월 21일 별세했다.

〈15회〉

△이요셉=3월 1일 자녀 결혼, 더리안웨딩홀 △정준수=4월 30일 아들 결혼, 해리츠

〈16회〉

△노상현=병원 이전 개업, 개금중앙요양병원,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 은정로 5 성원상매부 3층, 051-582-7001 △송규정=(주)원스 필 회장, 본부 차운위원, 3월 29일 빙부상, 동국대 경주병원

〈17회〉

△김원일=3월 16일 빙모상, 부산보훈병원 △김지참=1월 28일 빙모상, 영도 구민장례식장

〈19회〉

△김태명=4월 2일 딸 결혼, 더하이트웨일 △박재우=1월 16일 모친상, 아산병원 △백종무=4월 17일 장남 결혼, 판교 더블유스퀘어 △안호정=3월 13일 아들 결혼, GS타워 △임태석=1월 12일 모친상, 부산영락공원

〈20회〉

△김갑수=12월 17일 빙모상, 신촌 세브란스장례식장 △김영순=2월 27일 빙모상, 양산성당 △김원갑, 박원재=제12회 한백전 참가, 2월 24일부터 3월 1일, 서울 인사동 조형 갤러리, △김조동=1월 30일 모친상, 구평동 예일요양병원 △김종민=4월 7일 빙모상, 아주대병원 △배준태=2월 26일 빙모상, 울산 영락원장례식장

△박병철=2월 27일 모친상, 좋은강아병원 △서재봉=3월 4일 장남 결혼, 엠티웨이 △송경배=2월 8일 모친상, 강남성모병원 △윤재일=4월 16일 빙부상, 광주여자장례식장 △정해녕=1월 16일 장남 결혼, 해운대 백스코 △조영철=3월 31일 빙모상, 분당세생병원 △황경선=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4길 6-5 202호(주암동, 한국빌라)

〈22회〉

△문원경=2월 27일 장남 결혼, 소노밸리체 컨벤션 △박재상=5월 21일 장남 결혼, 신라호텔 △배영호=2월 13일 장남 결혼, 창원 호텔인

서울가든호텔 △이석우=4월 9일 차남 결혼, 경주현대호텔 △전창호=1월 22일 차남 결혼, 신촌성결교회 △하성일=1월 9일 아들 결혼, 더베일리하우스 삼성

〈24회〉

△권해영=2월 3일 빙부상, 광안리 좋은강아병원 △김동운=3월 13일 모친상, 부산성모병원 △박태진=차남 결혼, 대구 비앙고웨딩 △안태인=4월 3일 차남 결혼, 범일동 더위드웨딩홀 △안형수=3월 29일 모친상, 부산의료원 △이상룡=5월 7일 모친상 시민장례식장 △이현국=1월 30일 장녀 결혼, 앤플러스컨센서웨딩 △정연선=4월 25일 모친상, 은명원 △황구선=5월 15일 장남 결혼, 해운대 W웨딩 백스코점

〈25회〉

△김동철=2월 21일 모친상, 신마산장례식장 △김민석=1월 23일 장남 결혼, 해운대 센텀호텔 △이수영=4월 16일 차남 결혼, 서울 리듬클래스원 △이신호=4월 16일 장녀 결혼, 남한성당 △조판제=2월 14일 장남 결혼, 김해 아이스퀘어 △최동하=4월 20일 장남 결혼, 더샵 센트럴스타 해리움웨딩 △최신철=4월 9일 장남 결혼, 서울 더 발렌티 청담

〈26회〉

△강성우=2월 28일 장남 결혼, 대구 파라다이스웨딩 △김경철=3월 12일 차남 결혼, 구로구 웨스턴베니비스 △김기현=4월 13일 빙모상, 사상 한중프리미엄장례식장 △김사식=1월 30일 차남 결혼, 용산구 한강성당 △김재용=3월 3일 빙부상, 시민장례식장 △김종수=3월 30일 모친상, 광안리 서울병원 △김지승=4월 28일 빙모상, 괴정요양병원 △김형규=2월 23일 모친상, 거제 백병원 △김형도=1월 26일 부친상, 울산대병원 △박동기=3월 5일 장남 결혼, 논현동 더베일리하우스 △박수영=1월 16일 장남 결혼, 창원 호텔인

터네셔널 △박원상=4월 4일 빙모상, 괴정병원 △서준희=3월 24일 모친상, 삼성서울병원 △설광용=2월 15일 교장 퇴임식, 해풍고등학교 강당 △신재호=2월 16일 교장 퇴임식, 삼성중학교 강당 △오성익=4월 2일 아들 결혼, 서초구 엠티웨이 △故안상영=5월 1일 차남 결혼, 뜻데낀리리움 웨딩홀 △윤수현=1월 18일 부친상, 인창병원 △이광수=5월 1일 차녀 결혼, 서초구 더플래스호텔 △이상원=5월 7일 모친상, 시민장례식장 △이유상=5월 29일 장남 결혼, 송파구 교통회관 △이재웅=4월 16일 아들 결혼, 서울 신라호텔 △이창호=3월 28일 모친상, 서울성모병원 △이철섭=2월 29일 장남 결혼, 서울 신라호텔 △이현근=1월 9일 장녀 결혼, 역삼동 오나르 바이 오스티얼 △정동길=4월 16일 차녀 결혼, 서울대교 연구공원웨딩홀 △정문기=4월 10일 빙모상, 부산의료원 △정영률=3월 19일 모친상, 진주 경상대병원 △조민규=4월 30일 장남 결혼, 서울 화이트도어 △차정대=3월 25일 모친상, 시민장례식장 △최경무=1월 31일 아들 결혼, 남한성당 △최성수=2월 1일 기술보증기금 감사 취임(임 2년) △최수일=3월 18일 빙모상, 사직동 아시아드장례식장 △최정환=2월 13일 장남 결혼, 아모리스 강남 △홍형택=5월 15일 장녀 결혼, 63번션센터

〈27회〉

△강태영=2월 15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곽태홍=2월 20일 장남 결혼, 고양시 엔씨티웨딩컨벤션 △김건국=4월 2일 장남 결혼, 강남 YMCA △김경진=2월 29일 빙모상, 해운대 백병원 △김광호=3월 19일 장녀 결혼, 서소문교회 △김상문=1월 30일 장녀 결혼, 해운대 그랜드호텔 △나찬희=2월 24일 부친상, 가봉군 농협장례식장 △문기영=2월 19일 부친상, 괴정요양병원 △박정용=2월 19일 모친상, 고신대 복음병원 △양재균=1월 16일 장녀 결혼, 삼성역 더베일리 하우스 △옥충석=3월



② 18회 동기회는 축하에서 조상체 회장단을 유인시키고, 부부동반으로 불철 마유회를 성대하게 치렀다. ③ 20회 동기회가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다. ④ 스타 군단 인 28회 동기회는 부산대 교수 김부윤 동문을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⑤ 44회 동문들이 모교 마교선수들을 초청해 올해 선전을 격려했다. ⑥ 70자들의 모임인 경포회는 매월 법회를 열고 청진하고 있다. ⑦ 용마산악회가 신임 회장으로 남기태(31회)로 임명건설 대표이사를 추대했다.

18회 동기회 = 정기총회, 복칠 야유회

지난 2월 25일 터존 뷔페에서 3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조성재 회장 등 집행부를 유임 시켰다. 또한 지난 4월 24일에는 밀양 소재 능동산에서 복칠 야유회를 즐겼다. 이날 야유회에는 부부 동반한 동기생들을 비롯해 5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20회 동기회 = 임시총회

지난 3월 18일 터존뷔페에서 30여명의 동기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회장 장병호.

26회 동기회 = 정기총회

지난 1월 29일 크리스탈 호텔에서 동기생과 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신임회장에 부산자모병원 산부인과와 원장 황명근 동문이 선임되었고 사무국장에는 김근덕 동문이 위촉되었다.

28회 동기회 = 정기총회

지난 3월 18일 더 스타 뷔페에서 30여명의 동기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신임회장에는 부산대 수학과 교수 김부윤 동문이 선임되었고 사무국장에는 홍실플라워 대표 김치운 동문이 위촉되었다.



29회 동기회 = 정기총회

지난 2월 25일 동기회 사무실에서 20여 명의 동기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신임회장에 부산자모병원 산부인과와 원장 황명근 동문이 선임되었고 사무국장에는 김근덕 동문이 위촉되었다.

33회 동기회 = 정기총회

지난 3월 9일 서면 골든뷰 뷔페에서 동기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JT테크 대표 이동근 동문이 신임회장에 선임되었고 신임회장에는 황명상 동문이 위촉되었다. 주기훈 동기국장은 유임되었다.

44회 동기회 = 모교 야구부 격려

지난 5월 4일 라비 뷔페에서 모교 야구부

선수들을 초청해 전국대회 출전식 행사를 가졌다. 44회 동기회는 후배 선수들을 격려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경포회 = 정기법회

지난 1월 16일 3월 19일 부산시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서 각각 5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법회를 열었다.

용마산악회 = 정기총회, 정기산행

지난 2월 4일 오아제 뷔페에서 4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토암건설 대표이사 남기태(31회) 동문을 선임했다. 지난 3월 13일에는 100여명의 동문과 가족 100여명이 간월산에서 정기산행 행사를 가졌다.

19일 장녀 결혼, 해운대 한화리조트 △윤지한=3월 26일 장남 결혼, 더샵 센트럴스타 헤리움웨딩 △이길학=1월 30일 장녀 결혼, 미국 LA 그레고리성당 △이광남=4월 2일 장남 결혼, 더 라비 △장성호=3월 20일 장녀 결혼, 구로구 웨스턴버니버스 △정형찬=5월 15일 장남 결혼, 대전 ICC호텔 웨딩홀 △조인용=2월 11일 모친상, 은종합병원 △태기섭=2월 20일 장남 결혼, 목화예식장 △허봉호=1월 16일 장남 결혼, 서울 JW베리어트호텔

(28회)

△구영소=1월 29일 빙모상, 영락공원 △김보상=4월 2일 딸 결혼, 강남구 삼원가든 △김용섭=2월 11일 빙모상, 부산보훈병원 △김재주=3월 5일 빙모상, 국립중앙의료원 △김준연=4월 17일 장남 결혼, 강남구 더 라비 △김한규=1월 21일 빙모상, 부산의료원 △김형진=3월 24일 모친상, 해운대 백병원 △남문경=1월 23일 장남 결혼, 해운대 백병원 △한명재=3월 31일 장녀 결혼, 동대문 JW베리어트 △황인업=3월 5

일 딸 결혼, 부산 SK플러网络传播 △박철원=4월 17일 빙모상, 삼성서울병원 △박홍태=2월 27일 장남 결혼, 노량진역 더리치캐슬, 2월 12일 빙부상, 일산병원 △신광태=2월 27일 차남 결혼, 서초구 베라체 △안 풍=월간 인쇄미당 사무실 이전, 부산시 중구 대청동 1가 30-3동아빌딩 3F △윤대주=3월 19일 차녀 결혼, 뉴심호텔 △이경포=5월 12일 장남 결혼, 해운대 센텀호텔 △이만수=전 KNN 사장, 4월 2일 아들 결혼, 해운대 그랜드호텔 △이상진=2월 11일 빙부상, 강남성모병원 △장기운=3월 28일 모친상, 삼신장례식장 △故정동진=3월 5일 장녀 결혼, 원안 웨딩베리컨벤션 △조윤제=1월 15일 모친상, 해운대 백병원 △주용계=3월 26일 아들 결혼, 서울 더케이호텔 △최명현=4월 24일 딸 결혼, 사학연금재단 △최성덕=4월 17일 빙부상, 강원도 태백병원 장례식장 △허대용=1월 10일 모친상, 해운대 백병원 △한명재=3월 31일 장녀 결혼, 동대문 JW베리어트 △황인업=2월

(29회)

△권두진=4월 17일 장남 결혼, 아시아드 시티웨딩홀 △김구현=4월 12일 빙부상, 문경장례식장 △김성문=1월 23일 장녀 결혼, 충청로 약현성당 △김민래=3월 27일 차녀 결혼, 부산 동래별장 △김용수=2월 13일 장남 결혼, 서울 롯데호텔 △김준곤=2월 20일 차남 결혼, 인천 제이웨딩컨벤션 △김하원=3월 2일 모친상 △김한일=3월 26일 빙모상, 부산성모병원 △문명환=3월 26일 장녀 결혼, 노월병원 △박동혁=1월 23일 장녀 결혼, 일구정성당 △박성호=1월 28일 모친상, 분당 서울대병원 △서석희=3월 22일 모친상, 삼성병원서울 △송경문=5월 15일 장녀 결혼, 메리움 △안종주=3월 8일 모친상, 진해 새공병원 △오경호=2월 21일 장남 결혼, 강남웨딩컨벤션 △윤정룡=4월 16일 아들 결혼, 더 플라자호텔 △전득산=1월 23일 차남 결혼, 강남구 마리아주스웨이

△전진호=4월 10일 부친상, 부산의료원

△전현수=2월 13일 모친상, 좋은리버뷰 장례식장 △정진수=3월 14일 빙모상, 남산동 희례병원 △조성진=3월 14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조한숙=1월 6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최범수=4월 16일 장녀 결혼, 서울행정법원 융선당 △최원락=3월 26일 모친상, 부산대병원 △한대우=2월 17일 빙모상, 신촌세브란스 △한휘철=4월 22일 부친상, 해운대 백병원 △허광국=4월 30일 아들 결혼, 호흡 금요산

(30회)

△강문국=1월 9일 장남 결혼, 샌디사이언스파크컨벤션 △강수철=2월 13일 차녀 결혼, 서울 아쁜가모웨딩홀 △구의본=1월 20일 빙부상, 일산 백병원 △권용택=4월 9일 차남 결혼, 샌팀 W웨딩홀 △김병환=1월 24일 장남 결혼, 황현호텔 △김재현=4월 2일 장남 결혼, 부산 풍성한고회 △김창근=4월 30일 장녀 결혼, 삼정호텔 △김현태=5월 22일 장남 결혼, 해

경제특강 듣고, 서울과 畫像 건배

우리들의 만남, 이색 이벤트로 분위기 쇄신



박장연 회장이 취임한 뒤로 '우리들의 만남'은 경제특강 등 '만남'의 방식을 디자인해 꾸미고 있다. 지난 3월 모임에 이병찬 회장이 참석해 동창회 발전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모임을 가진 서울의 '우리들의 만남' 모임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해 유대감을 과시했다.

박장연(29회) 회장이 광언한 대로 2016년에 들어 '우리들의 만남'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제동향 특강을 열고, 참석 동문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풍경도 연출되었다.

서면 '고래와 침치'에서 열린 모임에는 이병찬 본부회장이 참석했다. 직능동창회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이병찬 회장은 직능동창회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재경 우리들의 만남과도 교류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만남이 소통과 결속의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 동문들은 즉석에서 핸드폰으로 재경 우리들의 만남과 접속했고, 같은 시각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있던 재경팀은 모임 실황 사진을 전송하며 우애를 과시했다.

3월 모임은 박재운(36회) 부산경제진흥원 경제정책분석센터장의 '2016년 부산경제 전망'이라는 특강도 겸하여 신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동창회보 구독은 모교와 동창회를 도우는 일입니다.

문대 그랜드호텔 △김해균=1월23일 차녀 결혼, 더 베일리 하우스 △노영범=4월10일 장녀 결혼, 서울행정법원 융선당 △문장호=4월8일 모친상, 시민장례식장 △박규완=1월16일 장녀 결혼, 부산 인력성당 △설광렬=2월20일 차녀 결혼, 서울 피에스타카지노 △신영주=4월16일 장남 결혼, 삼성전자 서초사옥 △유현덕=4월23일 장녀 결혼, 해운대 그랜드호텔 △이건홍=2월17일 부친상, 한중프라임 △이상우=4월4일 빙부상, 서울 아산병원 △이철호=2월4일 모친상, 영락공원 △이현수=1월 9일 모친상, 부산 인창병원 △조현수=1월6일 빙부상, 좋은감안병원 △차상윤=1월30일 부친상, 서호병원 △최명업=2월18일 부친상, 시민장례식장 △최우철=1월24일 차녀 결혼, 서울행정법원 융선당

(31회)

△권종수=3월7일 모친상, 영도 정도양 병원 △김기호=2월20일 빙부상, 분당서

용마언론인클럽 회장 최영식 동문

이병찬 본부회장 참석, 폭탄주 세례로 상견



이민수(28회) 회장의 경기집권 미 마감된 언론인클럽에는 울산동문 다수가 참석한다.

설 <양부하>를 출간하고 소설 21세기 문학상 까지 수상한 소설가 이양훈(28회) 동문에 대한 축하 인사와 축배가 이어지면서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이양훈 동문은 자작 한시

'용마언론동문회집 병신춘행만해시' (龍馬言論門會集 丙申春興滿南詩)를 낭송해 주석의 음취를 한껏 뽐ну었다.

한편 부울경용마언론클럽 지난 2

월 정기모임에서 신임회장으로 최영식 동문을 추대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병찬 본부회장이 참석해 준비해 온 양주로 언론계 동문들에게 폭탄주 세례를 안기는 것으로 상견례를 대신했다.

'용마언론동문회집 병신춘행만해시' (龍馬言論門會集 丙申春興滿南詩)를 낭송해 주석의 음취를 한껏 뽐ну었다.

한편 부울경용마언론클럽 지난 2월 정기모임에서 신임회장으로 최영식 동문을 추대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병찬 본부회장이 참석해 준비해 온 양주로 언론계 동문들에게 폭탄주 세례를 안기는 것으로 상견례를 대신했다.



경불회 = 사찰 순례

경남중고 동문 불자회(경불회, 회장 정영천, 21회)는 지난 5월 22일 회원 및 가족(총 89명)들이 함께 충남 예산과 세산 일대 사찰 순례를 가졌다. 그날 경불회원 가족들은 바라밀회 출신의 수암스님의 도움으로 수덕사·방장·설정스님을 모시고 귀한 법문을 들었으며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정해사와 악승총림의 수덕사, '백제의 미소' 서산 마애삼존불을 예법하게 순례하고, 땅으로 해미읍성도 구경하였다. 다음 법회는 7월 16일 법계정사(시청 옆 부산시불교신도회관 내)에서 가질 예정이다.

장 △문현식=장남 결혼, 경남고총회관 △박성철=1월30일 모친상, 분당서울대 병원 △백영태=1월23일 장남 결혼, 해운대 그랜드블루 △손병철=3월17일 모친상, 부산의료원

(34회)

△곽수균=1월27일 모친상, 해운대 백병원 △권병웅=4월6일 빙모상, 매리얼빌 원 △김동원=1월7일 부친상, 품남권원 자력의학원 △김명수=2월20일 장남 결혼, 광안리 호메르스호텔 △손희준=3월10일 빙모상, 구포 한중장례식장 △송환 성=2월26일 빙부상, 시민장례식장 △채 선정=2월13일 부친상, 좋은감안병원 △최경성=1월31일 딸 결혼, 센텀사이언스파크웨딩홀 △최봉근=1월22일 혼재상, 해운대 성심병원

(36회)

△임창섭=4월21일 부친상, 시민장례식장

(39회)

△박용한=1월9일 부친상, 부산위생병원

(40회)

△박승준=1월27일 부친상, 구평요양병원

(41회)

△김성일=12월20일 모친상, 장립동 중앙병원 △김재섭=3월 5일 부친상, 영도구 구민장례식장 △차재욱=4월6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최영준=1월26일 빙부상, 구포 한중프라임

(43회)

△이상준=1월3일 부친상, 부산대병원

(57회)

△백명국=4월16일 본인 결혼, 김해 JW 웨딩컨벤션

포로로 끌려가 日王 노릇한 '양부하'가 돌아왔다

이양훈 동문, 임진왜란 실존인물 다룬 <양부하> 출간
<풍복바위>로 제5회 소설21세기문학상 수상 영예도



소설가
이양훈(28회) 동문이
임진왜란
때 포로로
일본에 끌
려갔지만,
역경을 딛
고 한때나
마 일본왕
의 역할까

지 수령했던 풍운아 양부하(1578~1675년)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소설 <양부하>를 출간했다.

양부하는 <연례십기술>과 <성호사설> 등 국내 저술뿐만 아니라 일본인 아오나기의 <종태합 조선역>에도 등장하는 실존인물이다. 이 동문의 소설에서 양부하는 15세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임을 받으면서 토요토미 가문의 주요 인물로 성

장한다. 또한 30년쯤 일본에 머물면서 맹나라 대신 심유경과 함께 토요토미 암살도 시도한다.

이 동문은 3차례 결친 조선통신사 일종을 둘고 도쿠가와 막부에서 쇼군들과의 잇단 만남, 그들 둘는 시마이 소우시즈 등과의 인간적 교감, 그리고 오사카성 전투에 개입했지만 오히려 토부모토에 의해 피살 위기까지 겪는 이야기 등 양부하의 일대기를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이양훈 동문은 <파란만장>지만 조선의 흔을 잊지 않은 양부하를 조명함으로써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위태로운 국면에 직면하는 이 시대 우리 민족에게 자신감과 활기 를 북돋우려고 쓰게 됐다"고 밝히고, 이 작품이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발전하기를 희망했다.

또한 이 동문은 지난 3월, 윤산소설가협회가 제정한 제5회 소설21세기문학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소설전문 문예 <소설 21세기>에 발표한 단편 <풍복

바위>.

<풍복바위>는 서생포 웨성의 성벽 바위에 새겨진 풍복(豐福)에 김해진 일본인 딱케바야시 타로오의 조상에 얹힌 일화를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패션 소설이다. 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지난 역사를 현실에 비춰 새롭게 해석한 작가의 사관(史觀)을 높게 평가했다.

이양훈 동문은 부산대를 졸업하고 KBS PD로 방송계에 종사했다. KBS부산총국 편성부장을 마지막으로 현업에서 떠난 뒤에도 고령 은퇴에 깊은 애정을 쓰며 향토성이 짙은 작품을 꾸준하게 발표했다. 부산MBC신인문학상, 문예사조 신인문학상을 수상했고 윤산소설가협회장을 역임했다.

이 동문은 부두정 용마언론인클럽 모임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며, 곧잘 모교와 동창회의 영광을 기원하는 한시(漢詩)를 자어와 주석(酒席)을 풍요롭고 멋지게 장식하기도 한다.

NEWS 동문동정

심재훈(9회) 경북대 안행대상 수상



미국과 한국은 물론
중남미 국가에서도 '인
술 상목수'로 주양받고
있는 심재훈 동문이 제
14회 안행대상 의료봉
사상을 수상했다. 안행
대상은 경북대 의대동
창회가 학술연구와 의료봉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업적이 두렷한 경북대 의대 원로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03년에 제정
되었다.

심 동문은 1961년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 복무를 마친 뒤, 1968년 미국으로 건너가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쳤다. 1973년 뉴저지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개업한 심 동문은 1992년 미국 법무부 형무소 의무부장에 취임하여 10년 넘게 수감자들에게 의술을 매फ였다. 일찍이 1990년 미국 법무부가 수여하는 자원봉사상을 받은 심 동문은 의무부장에서 물러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미국을 방문해 1개월쯤 머물며 서울 영등포구 요셉의원에서 장애인과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의술을 배웠다.

특히 심 동문은 2000년부터 북한을 비롯해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중남미 지역에서 무료진료소 책임자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여든 살의 고령을 잊고 사는 그는 아이티 시티 솔레에 문을 열 예정인 의료선교센터에서 의술을 베풀 예정이다. 이번에 받은 상금의 절반을 요셉의원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모교 의대장학금으로 내놓아 명실공이 '상목수'의 진면목을 알게워 주었다.

미국 플로리다 멘레이 비치에서 아직 개업으로 헌신하고 있는 심 동문은 "안행대상의 영광을 50년간 묵묵하게 내조해 준 사랑하는 아내 김인향에게 바칩니다"라고 '순
예보' 수상소감을 밝혀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

최해수(9회) 회고록 출판기념회



교육행정 전문인으로
창녕여고 교장을 역임한 최해수 동문이 자신의
일대기를 담담하게 펼어놓은 회고록 <인생
회고록>을 출판했다.

최 동문은 이 회고록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양산, 부산, 김해, 다시 부산으로 다섯 번이나 전학을 해야 했던 사유를 소개하며, 유년의 눈으로 따라본 해방 전 후의 격변과 한국전쟁의 상흔을 천천히 풀어내고 있다.

부친이 합당군수로 발령받고 당시 자리에 출몰하던 빨치산의 위협에 염려해 공직을 포기했을 만큼 대체로 유복하게 성장한 최 동문은 학제 개편이 단행된 가운데 경남중고를 졸업했다. 그는 회고록을 통해 당시 모교의 정황과 은사들의 이야기를 대체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성균관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시공부 대신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모친의 급서로 탐미암아 유학길마저 포기한 최 동문은 해광고예, 청구고를 첫 부임지로 해교단생활을 시작해 창녕여고 교장으로 마감할 때까지 동아대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만큼 학구열도 뛰어났다. 회임 이후에는 동아대 등에서 교육행정을 강의하

기도 했다. 회고록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행
상모집에 입상한 논문도 수록했다.

김해 진례면에서 태어난 최 동문은 모교 재학 시절부터 동번 솔씨가 출중해 여러 차례 상을 받았고, 교직에 있을 때도 제자들에게 응변을 가르쳤다. 부산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상을 여럿 차례 수상했고, 국민훈장 석류장을 서훈했다. 지난 4월 30일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문정수(12회) 부산민주항쟁사업회 이사장



김영삼민주센터 상임
이사로 활동하는 문정수
동문이 부산민주항쟁기
념사업회 이사장에 연임
되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1월 21일 부산민주
공원 소극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문 이사장을 다시 추대했다.

고려대를 나온 문 동문은 12, 13,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95년 초대 민선 부산시장에 당선되었다. 부산시장 재임 시절인 1996년 부산민주공원 조성 벤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주공원 건립과 기념사업회 출범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문정수 동문은 2014년 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취임해 부시민주항쟁과 6월항쟁 진상 규명 작업을 추진했다. 특히 부산시와 외회가 이기한 예산삭감 파동을 수습하고 민주공원을 정상화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정량부(17회) 부산시문화재위원장



정량부 동문이 5월 12일 제22대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부산시문화재위원회는 25명 이내의 문화재위
원과 20명 이내의 전문

위원을 두고 있다.

정량부 동문은 지난해에 신설된 부산시
문화상 공간예술분야에서 초대 수상자의
영광을 누린 바 있다. 동의대 총장을 역임한
정 동문은 특히 설계교육 공간을 확보하는
데 열성을 기울여 지역대학으로서는 전국
매이저급 건축사무소 임원을 상당수 배출
한 공로를 인정, 평가받고 있다.

부산백색도시포럼 상임대표인 그는 부
산시 건축위원, 미술위원, 도시공원위원, 도
시정비공동위원회 등으로 활약하며 지속가
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부산, 머물고 싶고
싶은 도시, 걸고 싶은 도시 부산을 가
꾸는 데 헌신하고 있다. 동의대 총장 재임
시절에는 교수들로 꾸미는 텐츠 콘서트를
기획해 주목을 끌었고 부산용마합창단 초
대 단장으로 '용마율악의 밤'을 성공적으
로 치러내기도 했다.

김형오(20회)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정치 일선에서 물려난
뒤에 대학 강의와 함께
저술활동을 활성하게 펼
치고 있는 김형오 전 국
회의장이 '리더십'을 주
요 콘텐츠로 삼은 새 저
서 <누구를 위한 나라인
가>를 폴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요즘, 정말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답답함을 느낄 특자들에게는 '현대장장비록'이 될 것이라고 평가들은 밀한다. 김 동문은 새 저서에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개헌 논란, 교육, 국회의원 비례대표 존치 문제에서부터 보물 암각화 반구대 보존에 이르기까지 지난 2년여 동안 전국을 뛰어든 정치 현안과 사건을 해부하면서 "하루빨리 정치가 복원되고 리더십이 회복돼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자기희생이 없는 지도자는 난국을 타개 할 수도, 시대를 책임질 수도 없다고 지적하는 저자는 "대한민국은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듯이, '못난 척' 하는 사람들의 나라 되어서도 안 된다"고 호소한다.

배석규(24회) 한국케이블TV협회장



배석규 동문이 한국
케이블TV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외국어대학 리시아
이학과를 졸업한 배
동문은 연세대에서 방송
영상학 석사학위를 받
았다. 동아방송 기자로 언론계에 진출한 그
는 언론통폐합으로 한국방송공사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차장과 통일부 차장을 역임
했다. 1994년 YTN 개국과 함께 보도본부
뉴스총괄부장으로 부임한 그는 웅성면지
국장과 YTN 미디어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09년부터 2015년 3월까지 YTN 사장을
연임했다. 동창회 활동에도 소홀하지 않은
배 동문은 언론인 모임인 용마밸리럽 회장
으로 선임해들의 사랑을 두루 받았다.

정성호(25회) 신춘문예 시조 당선

늦깎이 정성호 동문이 올해 경남신문 신
춘문예 지조 당선자로 뽑혔다. 당선작은 <
금빛 질경이>.
해양대 항해과를 수료하고 제주대 어로

온몸으로 10월 유신 항거한 김기홍 동문 태계

울산지역 민주화 투쟁의 선봉, “용기 있는 야당 인사”
모진 고문으로 안면마비·난청, 보상금은 고작 7백만원



1972년, 박정희 군사독재가 영구집권을 획책한 이른바 10월 유신 때, 울산지역에서 도 야당 인사 10여 명이 계엄군에 연행돼 고통을 치렀다. 그 가운데 심한 고문을 당하고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가장 오래 유품 치른 이가 당시 최현우 의원 캠프 기획실장 김기홍(4회) 동문이었다.

지난 60~70년대 울산지역의 민주화 투쟁을 대표하는 재야인사 김기홍 동문이 지난 3월 26일 향년 88세의 일기로 태계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상일보의 ‘인물로 읽는 울산유사’에 따르면, 고인은 울산시 북구 화봉동 자택에서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을 거듭한 일생을 마감하고 영면에 들었다.

울산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용기 있는 야당 인사”로 존경받아온 고인은 1928년 울산군 강동 편지마을에서 태어난 서울대에 입학해 “강동의 수재”로 일컬어졌다. 고향 후배인 안성표 전 울산시의장은 “강동은 어촌으로서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에 진학하는 학생조차 드물었기 때문에 경남고를 나와 서울대에 합격한 고인은 우리들의 우상이었다”고 회고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고인은 서울대를 중퇴하고 고향에 수산을 유봉업에 종사해 오장이 판매, 젓갈 판매 등 벌였으나 신동치 못했다. 그때 고인을 밭탁한 사람이 야당 정치권의 대부 격인 대동의원 원장 김재호 박사였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한문에도

밝다는 것이 김 박사의 눈에 띈 것이었다. 고인은 최영근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을 접는 한편으로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소작농의를 주도했던 지식인들과 농민운동도 벌였다.

고인이 유신 때 계엄군에 불법해 흑색한 고문을 당한 것은 계엄군이 조직한 빠리 살포 사건에 의해 구금된 야당 인사들이 모진 고문을 끝 이겨 하위 자백을 하려 하자 “보안사 요원들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환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이었다.

고인은 김영삼 전 영에서 민주화부국민회의 결성과 6월 행정 등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나 고문을 당하면서 인연이 미비되고 고막이 터져 만년에는 대화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울산화봉동 일대주택에서 쓸쓸한 만년을 보낸 고인에게 주어진 보답은 민주화운동 보상금 700만원이었다고 한다.

처명인사 5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박동문은 “미술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미술관의 다양한 전시와 각종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술관에는 전시, 미술 교육, 작품 기증을 지원하고 학술활동과 교양강좌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을 수 있어서 기업과 독자기들의 후원금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동문은 부산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정인의 대표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준환(29회) KCTC 대표이사 승진



이준환 동문이 항만부류기업인 케이씨티씨의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되었다. 이 동문은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사내이사로도 선임되었다. KCTC는 지난 회사 창립 이래 최대인 2,45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동문은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 회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1983년에 입사해 기획실장, 운영임원, 경영관리본부장, 총괄부사장을 거쳐며 30년 넘게 종사해 왔다. 이 동문은 “대량 고정고객 유치,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에 진력해 성장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준곤(29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준곤 동문이 지난해 연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수산청 어업진흥시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등을 거쳐 경상북도 해양개발과장

과 행양항만과장 등을 역임했다.

문호원(30회) KT파워텔 대표이사



KT 네트워크부문 부산네트워크 운용본부장 문호원 동문이 KT파워텔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이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문 동문은 KT 임코어 경영전략실장을 거쳐 유무선네트워크 전략본부 코어망 전략담당, 강북네트워크운용단 유선운용센터장을 역임한 무선통신 플랫폼 전문가로 꼽힌다.

문 동문은 “지난 20년간 지켜온 무전통신 1위 사업자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라며 “LTE 무전 서비스 파워볼을 넘어 무전통신과 연계한 새로운 컨버전스 솔루션을 발굴해 미래 성장사업을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광우(29회) 김기산(33회) 교장 부임



김광우(29회)



김기산(33회)

김광우 동문이 부산의 신종명문으로 등장한 해문대교 교장에 취임했다. 또 김기산 동문은 거제시 성포중학교 신임교장으로 부임했다.

해문대교는 전국 239개 고교 가운데 2015 학년도 대입수능 국영수 1,2등급비율 상위 24위를 기록한 부산의 명문이다. 서울 잠실의 영동임고에 재직하던 김광우 동문은 해운대고의 교장 초빙으로 부임했다. 김 동문은 “인

부울

▶박명현(1회) = 4월 29일 태계했다. 고인은 함양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황성남(3회) = 2월 24일 태계했다.

▶문영주(4회) = 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리구나힐스에서 태계했다.

▶지창수(8회) = 3월 1일 태계했다. 고인은 한국암률산업(주) 회장을 역임했다.

▶권영조(10회) = 2월 12일 태계했다. 고인은 서울에서 그린소아과의원 원장을 지냈다.

▶조영재(10회) = 지난해 12월 28일 태계했다. 고인은 경일스틸 대표이사를 지냈다.

▶김 훈(12회) = 2월 9일 미국 시애틀에서 태계했다. 고인은 현대전자부사장을 지냈다.

▶김수일(13회) = 1월 26일 태계했다.

▶고수길(14회) = 3월 27일 태계했다. 고인은 서울대 미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아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경성대 예술미술과 교수로 재직했다. 퇴임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존경을 받았다.

▶장병도(17회) = 3월 21일 태계했다.

▶송의준(19회) = 2월 23일 태계했다.

▶이성근(20회) = 2월 1일 태계했다. 고인은 천안해운 상무를 지냈다.

▶김진영(22회) = 3월 21일 태계했다. 서울

대 법대와 대학원을 나온 고인은 부산지법 판사 등을 역임하고 법무법인 국제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조인이면서도 낙천적이고 성품이 소탈해 선배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잘 아울렸고 법률상담은 물론 형편에 어려운 동문들의 변론도 마다하지 않았다. 후배들이 평소 고인을 ‘찐빵형’ ‘빵형’으로 부를 만큼 친근감이 유별났다.

▶정도안(22회) = 2월 15일 태계했다.

▶허성도(22회) = 3월 13일 태계했다.

▶박상훈(26회) = 4월 14일 태계했다.

▶이순원(29회) = 지난해 12월 31일 태계했다. 고인은 법무사로 활동했다.

▶박진수(30회) = 3월 23일 태계했다. 고인은 함양대 영문과를 나와 연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부산일보 스포츠레저부장, 제2사회부장을 지냈으며 문민정부 때 청와대 출입기자로 활약했다. 울산취재본부장과 부일일보 사장을 거쳐 논설주간으로 되임했다. 예주가이며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과 교류도 활발했다.

▶이재갑(33회) = 5월 13일 태계했다. 고인은 현대페인트 대표를 지냈다.

간촌중의 정신을 함양하고 배려와 나눔의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성포중은 전국 3,200여개 중학교 가운데 5개교가 지정된 ‘예술꽃 씨앗학교’에 포함돼 전교생 모두 1개 악기 연주 기량을 둑아 문화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발행된 회보 제408호 25면 인물란에 무용법등문 40회로 바로 잡습니다.

2016년도 회비 납부 현황

● 회장 이병찬 2,000만원

● 자문위원

김길제(18), 조성재(18), 남진현(19), 2015년,
박용덕(20), 임경범(21),
이상 100만원

박종호(31), 손영태(31), 이동근(33), 이진호(34),

장인화(35), 정윤성(35, 2015년),

김경태(38, 2015년), 윤경만(38), 박인석(39),
우영환(40), 윤종진(41), 박종현(50)

● 아구후원금 낸 기수

: 18회, 21회, 24회, 29회, 30회, 31회, 33회,
34회, 40회, 41회, 43회 (2015년 ~ 36회, 38회)

● 부회장

박종찬(25), 박상호(26), 박성철(29), 박창언(29),
김현태(30), 류명석(31), 박명진(33), 이양길(41)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 시하지역동창회 특별회비 100만원

김중광(23), 곽두희(24), 김진철(25), 서병수(25),
최동하(25), 최강호(29), 윤성덕(30), 최우철(30),
이상 200만원

총 34명 (합계 6,100만원)
: 18회, 23회, 24회, 29회, 30회, 31회, 33회,
34회, 40회, 41회, 43회 (2015년 ~ 36회, 38회)

● 동창회 발전기금 (총명부 발행회사)

1,000만원

● 본부 분담금 낸 기수

: 18회, 23회, 24회, 29회, 30회, 31회, 33회,
34회, 40회, 41회, 43회 (2015년 ~ 36회, 38회)

서광연 신윤수 이윤석 이정영 임서용 임향선
지동선 차현희 흥의원

37회(19명)

권희석 김성현 김영관 김영태 김현범 김종희 김형기
문진행 박용진 송경희 이상백 이주홍 이효진 장민이
조상현 조성각 허병혁 해부남 험태운

38회(17명)

김기현 김석구 김영길 김관준 뮤인식 문의현 박준표
설 춘 모희진 유관재 윤경민 이종훈 이한국 정인철
조석희 조용희 차성원

39회(14명)

곽기영 김도경 김병기 김용화 김현술 김해수 노성수
43회(9명)

비평모 실황삼 오선호 윤원숙 정용국 정진해 최정현
(오선호 2017년)

40회(13명)

김경환 김성진 김종률 박승준 박양근 박재현 배병훈
배영진 신상봉 심 훠 이정삼 장갑구 장명재

(김경환 2017년)

41회(11명)

강석희 김현률 박상환 박정화 양미호 이경호 이수영
이영길 이종민 임병호 환성원

42회(6명)

김재용 김태구 박동식 신동복 정홍준 제정환
43회(9명)

김병규 김종식 문기택 윤상욱 이성훈 이승택 이용상
이호영 정세중

44회(7명)

김동숙 배봉진 서영민 이동렬 임정훈 조영호 황태복
45회(8명)

김상수 김태호 김현호 박상화 박 을 장상의 친상영
최재영

46회(7명)

권성기 김경희 이성민 이주용 정영석 한명길 황상희
(권성기 2018년, 이성민 2019년, 한명길 2022년)

47회(1명) 성상용

49회(3명) 김학균 장민건 조영월
기수 & 이름 확인불명 11명

50회(2명) 박종현 박현숙

51회(2명) 박길호 정진우

52회(1명) 김상곤

54회(1명) 강종수

55회(1명) 최범준

66회(1명) 최성원

66회(1명) 김시준

67회(1명) 홍유관

69회(1명) 정민기(2023년)

경고하고문영위원회 등 1명 주자증(2017년)

기수 & 이름 확인불명 11명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본부)

2015년 9월 3일 ~ 2016년 4월 30일

성명	기수	남부액	성명	기수	남부액	성명	기수	남부액	성명	기수	남부액	성명	기수	남부액
김용남(17회)	100,000	박상희(26회)	이기환(30회)	500,000	김진수(43회)	100,000	- 소계	-	- 총 누계금액	-	-	-	-	-
김명기(23회)		10,000,000	김기산(33회)	100,000	박충현(50회)	1,000,000	1억 1,260만원	13억 1,887만원						
100,000,000	박인평(29회)	500,000	오상민(34회)	300,000										

40회 동기회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

'살아온 딱 그만큼 즐겁게 삽시다!'



■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4일(토)

■ 오후 2시 : 경남고

■ 오후 4시 : 해운대 그랜드호텔

• 본부동기회장 우 영 환 • 재경동기회장 이 흥 기

참 치 사 랑



예약문의 (051) 256.3737



대표

유 법 권 (43회)

010.3860.8497

구 자 삼 (45회)

010.4913.9432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HUROM

"내겐 너희가 선물이야"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휴롬주스를 만들고
쑥스러운 마음속 말 한마디 적어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선물이란 그런 것인니까요

HUROM



휴롬이 특별한 이유



자연의 맛 그대로!

자연으로부터 온 채소·과일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섭취!



섭취가 간편한!

많은 양의 채소·과일을
한 잔으로 간편하게!



영양이 다양해!

비타민, 미네랄 등 채소·과일의
다양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



효소가 살아 있는!

채소·과일을 가공의 과정 없이
그대로 담아 효소가 살아 있는!